로컬(리티)과 6월항쟁

광주에서 6월항쟁을 다시 보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8년
민주주의 학술 펠로우
연구 보고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로컬(리티)과 6월항쟁

광주에서 6월항쟁을 다시 보기

2018년
민주주의 학술 펠로우
연구 보고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연구책임자|
김봉국(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HK연구교수)

이 연구 보고서는 2018년 민주주의 학술 펠로우 연구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로컬(리티)과 6월항쟁

광주에서 6월항쟁을 다시 보기

로컬(리티)과 6월항쟁

광주에서 6월항쟁을 다시 보기

김봉국(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HK연구교수)

본 연구는 최근 학계의 로컬리티(locality)에 대한 문제의식을 한국 민주주의 운동사 연구의 확장을 위해 가져온다. 현재 공식화된 기표로서 '6·10 민주항쟁'이라는 명칭이 상징하고 있는 바와 같이, 1987년 6월의 전민항쟁은 6월 10일을 중심으로 기억되고 기술되고 있다. '6·10'이라는 명명 그 자체가 (무)의식적으로 6월항쟁을 서울(중앙) 중심의 시각에서 해석한 결과이자, 그와 같은 시각을 재생산하고 있다. 민족(주의)과 국민국가의 동질화의 욕구가 보편적 가치로서의 민주주의와 그 운동을 바라보는 데에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즉 '6·10 민주항쟁'이라는 기표는 운동의 다양한 계기와 다층적 전개 양상의 맥락을 소거해 버린 채 항쟁을 중앙(서울) 중심의 시각 속에서 획일화할 위험성을 갖는다. 물론 6월항쟁을 전국적 단위에서 입체적으로 포착하려는 많은 조사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컬의 맥락에서 다채롭게 전개되었던 항쟁의 양상 및 주체의 경험과 기억을 구체적으로 조망하지 못했던 것 역시 사실이다. 6월항쟁의 지역적 차이를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하나의 서사가 아닌 다양한 서사를 함축한 6월항쟁의 역동성과 다면적 풍경을 담보할 수 있다.

실제 광주라는 로컬(리티)의 맥락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는 6월 10일을 기점으로 전민항쟁의 양상으로 확대·발전하지 않았다. 당시 6월항쟁의 주요 세력이었던 학생, 사회단체, 종교계, 시민 간에는 서로 다른 운동의 계기와 맥락이 존재했다. 심지어 학생운동세력의 양대 축을 이루었던 지역의 전남대와 조선대 역시 학내의 여러 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항쟁 참여의 시기와 양상을 보였다. 기독교 내에 가톨릭과 개신교 역시 마찬가지였다. 사회단체들 역시 다를 바 없었다. 이와 같은 지역 내 서로 다른 항쟁 주체 간에 리듬 차는 물론, 전민항쟁의 주역인 일반 시민의 항쟁참여 역시 다양한 계기와 양상을 갖는 것이었다. 더구나 지역의 이와 같은 흐름이 중앙(서울)의 '6.10'으로 귀결되기는 만무했다. 실제 광주 일원의 시위가 고조된 시점이 서울이나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인

이유는 이와 같은 로컬의 특이한 맥락 때문이었다. 또한 '호헌철폐'나 '민주헌법쟁취'와 같은 구호로만 수렴될 수 없는 '5·18' 이후 지역민의 중층적 경험, 기억, 정서가 기저에 흐르고 있었음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광주라는 로컬의 위치에서 6월항쟁을 다시 바라보는 가운데, 6월항쟁의 의미, 동역학, 기억의 정치에 대해 재성찰할 것을 제기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6·10 민주항쟁’이라는 신화 ····· 9

Ⅱ. 5·18과 6월항쟁 사이에서 ····· 15

Ⅲ. 광주가 경험한 6월항쟁 ····· 25

Ⅳ. 6월항쟁 이후 광주의 기억 ····· 37

Ⅴ. 나오며: 로컬에서 바라본 6월항쟁 ····· 43

참고문헌 ····· 45

구술자료 ····· 46

부록 ····· 47

Ⅰ.
들어가며: ‘6·10 민주항쟁’이라는 신화

Ⅰ. 들어가며: ‘6·10 민주항쟁’이라는 신화

최근 인문·사회학계 전반에서 로컬(local)과 로컬리티(locality)에 주목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로컬(리티)에 대한 관심의 고조에는 기존 국민국가나 민족(주의)의 통합논리와 시각이 파생시킨 폭력성을 비판하는 학계의 문제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주지하듯이 국민국가와 자본주의 시장의 통합논리는 다양한 역사·사회적 맥락을 갖는 로컬의 이질적 정체성을 선택과 배제를 통해 동질화했다. 뿐만 아니라 ‘중앙(서울)-지방’의 불균등 구조 속에 로컬을 주변화 시켰다. 동시에 오늘날 일국단위를 넘어 초국가적 스케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치·경제·문화의 교류와 관계망의 형성에 따른 현실의 반영이기도 하다(김용규, 2008). 소위 ‘글로컬리티(glocality)’, ‘트랜스로컬리티(translocality)’ 개념의 유행은 이와 같은 로컬(리티)에 대한 변화된 시각을 잘 보여준다(장희권·류지석·이상봉, 2009). 특히 디지털 기술공학에 기반한 유비쿼터스(ubiquitous) 네트워크 속에서 로컬은 단순한 고정불변의 경계(지리적 스케일)가 아닌, 장소(locus)의 의미를 근간으로 인종, 민족, 계급, 젠더, 문화, 시장 등 ‘다양한 정치·경제적 문맥들이 교차하는 갈등과 협상의 장’으로 이해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학계의 로컬(리티)에 대한 문제의식을 한국 민주주의 운동사 연구의 확장을 위해 가져온다. 현재 공식화된 기표로서 ‘6·10 민주항쟁’이라는 명칭이 상징하고 있는 바와 같이, 1987년 6월의 전민항쟁은 6월 10일을 중심으로 기억되고 기술되고 있다. ‘6·10’이라는 명명 그 자체가 (무)의식적으로 6월항쟁을 서울(중앙) 중심의 시각에서 해석한 결과이자, 그와 같은 시각을 재생산하고 있다. 민족(주의)과 국민국가의 동질화의 욕구가 보편적 가치로서의 민주주의와 그 운동을 바라보는 데에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즉 ‘6·10 민주항쟁’이라는 기표는 운동의 다양한 계기와 다층적 전개 양상의 맥락을 소거해 버린 채 항쟁을 중앙(서울) 중심의 시각 속에서 획일화할

위험성을 갖는다.[1] 물론 6월항쟁을 전국적 단위에서 입체적으로 포착하려는 많은 조사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컬의 맥락에서 다채롭게 전개되었던 항쟁의 양상 및 주체의 경험과 기억을 구체적으로 조망하지 못했던 것 역시 사실이다.

본 연구는 6월항쟁의 지역적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하나의 서사가 아닌 다양한 서사를 함축한 6월항쟁의 역동성과 다면적 풍경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본 연구는 6월항쟁 30주년을 기념해 실시한 지역(광주)의 구술 자료를 토대로, 추가적인 현장조사 및 인터뷰, 지역 신문, 잡지, 방송, 유인물, 선언문, 사진 등에 자료를 활용해 6월항쟁의 경험과 기억을 로컬의 맥락에서 다시 바라보고자 한다.

실제 광주라는 로컬(리티)의 맥락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는 6월 10일을 기점으로 전민항쟁의 양상으로 확대·발전하지 않았다. 당시 6월항쟁의 주요 세력이었던 학생, 사회단체, 종교계, 시민 간에는 서로 다른 운동의 계기와 맥락이 존재했다. 심지어 학생운동세력의 양대 축을 이루었던 지역의 전남대와 조선대 역시 학내의 여러 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항쟁 참여의 시기와 양상을 보였다. 기독교 내에 가톨릭과 개신교 역시 마찬가지였다. 사회단체들 역시 다를 바 없었다. 이와 같은 지역 내 서로 다른 항쟁 주체 간에 리듬 차는 물론, 전민항쟁의 주역인 일반 시민의 항쟁참여 역시 다양한 계기와 양상을 갖는 것이었다. 더구나 지역의 이와 같은 흐름이 중앙(서울)의 '6.10'으로 귀결되기는 만무했다. 실제 광주 일원의 시위가 고조된 시점이 서울이나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인

---

1) 기존 6월항쟁사는 다양한 지역적 맥락을 간과한 채 '6·10투쟁'을 중심으로 중앙(서울)중심주의 시각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더 문제적인 것은 이런 입장이 무비판적으로 수용되면서 지역 내 6월항쟁사 조차도 동일한 역사인식을 재생산하고 있는 점이다. 한 예로 6월항쟁 20주년을 맞이하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발간한 책자는 "6·10대회가 끝난 뒤 광주·전남지역은 소강국면으로 빠져들었다. (…) 항쟁 초기 광주지역이 이렇게 소강상태를 보인 것은 당시 가두시위의 주력인 학생운동권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남대 경우는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용봉대동제가 열려 호헌철폐 투쟁에 동참하지 못했고, 조선대도 학내 민주화투쟁 문제로 시위를 벌일 형편이 못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371). 또한 비교적 최근 광주·전남지역사회운동사간행위원회의 책자 역시 "광주에서의 시위가 6월 19일 이후에야 가열되었는데, 그 이유가 광주지역 경찰의 시위진압 능력은 상대적으로 큰 반면 시위의 실질적인 주력이라 할 수 있는 학생운동의 대응 태세가 뒤늦게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 광주지역의 대학들에서는 5월 투쟁 과정에 있어서도 변변한 가두투쟁을 조직해내지 못함으로써 대규모 학생대중의 동원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6월 9일 최루탄에 피격된 광주출신 이한열의 동문들(진흥고)에 의한 총학생회의 시급한 투쟁 촉구, 명동성당 농성 및 부산·전주·대전 등지에서의 시위 격화에 자극받은 시민들의 고무된 반응에 영향을 받으면서 6월 16일 이래 총학생회 간부들의 삭발, 혈서 등을 통해 학내 대중의 열기를 급속히 고조시키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다(광주·전남지역사회운동사간행위원회, 2016, 323-324). 두 개의 6월항쟁사 모두 당시 광주지역 투쟁의 흐름과 상황을 표면적 현상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그 조차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무엇보다 지역운동세력 내부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상황판단 및 대응 맥락은 설명하지 않은 채, 지역에서의 투쟁을 이한열열사의 죽음과 타 지역의 투쟁에 자극받은 수동적 활동으로 서술하고 있다. 광주지역의 시위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폭발했다면, 왜 그러했는가에 대한 구체적 상황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지역 운동주체들의 주객관적 조건, 정세인식, 활동 등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광주지역 6월항쟁사는 운동주체들의 정세인식 및 투쟁 조직화를 위한 현실적 여건 및 고민은 검토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기 때문에 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광주시민이 대중투쟁에 적극적으로 가세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아무런 이해도 주지 못하고 있다. 단지 대규모 시위의 전개 여부만을 놓고 서울(중앙) 및 타 지역과 비교평가를 하고 있는 수준이다. 요컨대 1980년 이후 계속된 5월투쟁은 물론 1987년 초반부터 시작된 지역투쟁의 흐름과 특징은 시야에서 사라진 채, 서울(중앙) 중심주의 시각을 지역 스스로가 여과 없이 수용해 재생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 자체가 (무)의식적 차원에서 중앙의 시선 속에서 지역을 바라보는 것이며, 그로 인해 지역의 다채로운 투쟁의 흐름과 양상을 주변화 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더 이상 중앙에서 지역을 내려다 볼 것이 아니라, 역으로 지역에서 기존의 신화화된 중앙 중심주의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울퉁불퉁한 주름을 가진 6월항쟁의 복합적이며 다층적인 측면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중앙(심)-지역(변방)'의 틀이 아닌, '지역 대 지역'이 동등한 위상에서 차이를 견지하면서도 하나가 되었던 6월항쟁의 다양한 경험과 의미를 그려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입장이야말로 6월항쟁을 입체적으로 재현하고 현재적 의미를 재정립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유는 이와 같은 로컬의 특이한 맥락 때문이었다. 또한 '호헌철폐'나 '민주헌법쟁취'와 같은 구호로만 수렴될 수 없는 '5·18' 이후 지역민의 중층적 경험, 기억, 정서가 기저에 흐르고 있었음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광주라는 로컬의 위치에서 6월항쟁을 다시 바라보는 가운데, 6월항쟁의 의미와 동역학을 재성찰할 것을 제기하고자 한다.

II.
5·18과 6월항쟁 사이에서

II. 5·18과 6월항쟁 사이에서

현재 1987년 '6월항쟁'을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이하 5·18)'의 연장선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6월항쟁의 특이성에 주목하여 그것과의 차이나 특이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다분히 현실정치의 이해관계가 투영된 이 대립된 시각 사이에서 5·18과 6월항쟁은 서로에게 어떤 의미로 남을 수 있을까? 5·18의 경험과 기억이 없이 6월항쟁을 이해할 수 있을까? 반대로 6월항쟁을 잠재된 5·18의 발현으로만 규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특히 5·18을 새긴 광주라는 장소에서 이와 같은 이분법적 사고는 5·18과 6월항쟁 모두에 대해 아무것도 설명해 줄 수 없음은 자명하다. 사실상 1987년 광주의 6월은 80년 5월의 경험이 파생한 정서와 문화 등을 내재한 가운데 그것과는 다른 새로운 공감과 연대의 장을 형성하고, 닮으면서도 이질적인 역사의 한 장면을 만들었다.

1987년 6월항쟁 전야인 4월에서 5월까지 광주지역의 운동은 크게 두 갈래의 흐름이 병존하는 가운데, 양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투쟁의 계기가 마련되고 있었다. 하나는 서울 및 기타 지역과 연계된 종교계 및 전남사회운동협의회(전사협)와 같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과 4·13호헌조치에 대한 투쟁이었다.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비롯한 지역 내 각 부문운동 역시 현장의 권익투쟁을 중심으로 전국적 운동과 일정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제기된 정치적 사안들에 대응했다. 다른 하나는 여전히 지역의 상흔이자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80년 5·18문제의 해결을 위한 싸움이었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과 4·13호헌조치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의제로 한 전국적 투쟁의 흐름 속으로 광주를 끌어들였다면, 5·18문제는 이 전국적 흐름과 보조를 맞추면서도 광주 지역만의 독특한 투쟁의 계기와 풍경을 낳았다. 요컨대 이 서로 다른 계기들이 중첩되는 가운데, 광주는 서울은 물론 전국의 운동과 연결되면서도 나름의 독자적인 투쟁의 리듬과 성격을 보였다.

6월항쟁 당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총무부장이었던 고○○은 한 인터뷰에서 87년 3월 개강 이후 총학생회의 대중 활동을 다음과 같이 개괄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총학생회 활동 시 기억은 해년 마다 매시기 진행되어 온 투쟁과 사업(출범식, 4·19정신계승투쟁, 5월제, 6월대동제, 농활, 박관현열사정신계승투쟁 등)과 정치적 격변기였던 1987년의 시대적인 정치상황(박종철 고문치사 책임자 처벌, 4·13호헌조치 분쇄, 6월항쟁, 수해복구, 남대협 출범식, 대통령 선거 등)에 대처하기 위한 행사와 투쟁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에 급급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생 대중조직으로서의 학생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고민이 제기되었고, 정치투쟁 일변도의 학생회 활동에서 학생대중의 일상적인 요구를 담보함으로써 학생회의 대중적 지반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일상적 학원 민주화 투쟁이 진행되었고, 인복위를 중심으로 한 일상적 투쟁이 주요 이슈로 제기된 것으로 기억되나 어떻게 진행되고 정리되었는지 자세한 기억이 없다(고○○ 구술증언).

증언자의 회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시 전남대 학생운동세력은 매년 독자적으로 전개해오던 대중사업과 투쟁의 흐름 속에서 박종철고문치사사건과 4·13호헌조치 등 1987년 급부상한 정치적 현안에 대응해 대중투쟁을 조직하고 실천해갔다. 1986년 겨울방학 기간 전남대 학생운동세력은 사회구성체논쟁에서 파생된 운동노선 간의 분열과 대립을 조직적·집단적으로 일소하고, '용봉학우로부터 용봉학우에게로'라는 기치와 같이 학생운동의 대중화를 통해 학생회의 토대를 다지는 것을 주요한 사업방향으로 설정했다. 이와 같은 활동방침은 당시 전남대 학생운동이 '6·10 민주항쟁'이라는 특정 사건을 최종적 결과나 목적으로 상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더 나아가 이것은 '6·10 민주항쟁'이라는 신화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질적인 결을 가진 다양한 사유와 실천을 그것과의 인과관계로만 설명하려는 사후적이며 환원론적 인식의 욕망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한다. 서로 다른 계기와 실천이 중첩적으로 뒤엉킨 채 항쟁의 거대한 물줄기로 나아갔던 것이 바로 광주지역의 6월항쟁이었다.

전남대를 위시로 한 광주지역 학생운동 세력이 학원민주화, 어용교수 퇴진, 병역 집체 훈련 거부, 학생복지 등 학내문제와 정치투쟁을 동시에 고민하면서 나름의 독자적 투쟁 노선과 일정을 기획하고 실천했던 가운데, 전남사회운동협의회(전사협)와 같은 지역 전선운동체는 전국적 차원의 운동과 일정한 연계관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각 부문운동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했다. 특히 각 부분운동이 그 내부의 문제에 몰입되는 것을 탈피해 전국적 투쟁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연대 투쟁을 추동하는데 역량을 집중했다.

87년 6월항쟁 당시 전남국본 사무차장이자 전사협 중앙상임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최○○에 따르면, 전사협은 결성 자체가 80년 5월 이후 침체된 지역운동이 83년경부터 활성화 된 상황에서, 지역의 각 부문운동을 반독재민주화투쟁이라는 큰 물줄기로 결합시키고, 기존 명망가 중심의 운동에서 벗어나 민중운동에 기초한 지역의 공동전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루어졌다. 이후 86년 3월 30일 광주 YMCA에서 열린 직선제 개헌 추진 현판식에서 대중투쟁을 조직하고, 이후 5월 3일 인천 신민당 개헌 현판식 집회에 적극 참여했다. 87년 1월 박종철군이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으로 죽고, 2월 7일 전국적 차원의 규탄집회를 시작으로 광주에서 대규모 시민 참여 시위가 2~3월 계속 전개되는 가운데 4·13호헌조치가 발표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사협은 내부 논의를 통해 더 이상 공동전선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고 2·7 규탄

대회 이후 논의해오던 도민운동전선 결성문제를 추진했다. 전사협은 자신의 가맹단체인 전청협을 통해서 서울 및 전국적 조직망을 가지고 있던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과 연대를 모색하면서 이를 준비했다. 4·13 조치 이후 5월에 도민운동본부를 결성한다는 계획 아래 광주 재야인사들을 설득하고 전국단위 모임을 추진했다. 그러나 서울에서 추진동력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광주에서는 5월투쟁을 통해 분위기가 고조되자 5월 18일 망월묘역에서 5·18 7주기 추모제가 끝난 직후 집회를 통해 국민운동본부발족선언을 하였다(최○○ 구술증언).

이와 같이 1987년 6월항쟁으로 가기까지 학생운동세력과 전사협과 같은 사회운동 세력은 전두환정권 퇴진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지향했지만, 구체적 실현 방도와 활동 궤적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반독재 민주주의라는 큰 흐름을 공유한 채 연대투쟁을 조직화했지만, 각자가 위치한 자리와 조건 속에서 정세와 운동을 바라보는 입장은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대학생들은 학내 민주화와 학생운동의 대중화라는 과제와 매년 반복되는 4·19 및 5월투쟁을 박종철고문치사사건이나 4·13 호헌조치와 같은 정치적 현안과 결합해 어떻게 조직해갈 것인가를 고민했다. 반면 전사협은 지역 내 운동의 공동전선 결성을 일차적 과제로 내세우며 각 부문운동보다는 반독재민주화투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전국적 단위의 운동과 연결하고자 했다. 때문에 세부적인 투쟁의 조직화와 실천방식은 물론 리듬에 있어서도 양자는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전사협을 중심으로 한 전선운동세력 역시 그 내부에서 정세판단의 차이에 따라 공동전선 결성에 입장을 달리했다. 신한민주당(약칭 신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과 일정하게 연계된 세력은 4·13호헌조치 이후 사태를 관망하면서 대응하려는 신중론을 보인 반면에, 전남 민주주의 청년운동연합(이하 전청련)을 중심으로 한 집단은 공동전선의 시급한 발족을 추진했었다. 그 결과 전남국본 결성 초기 신중론의 입장에 섰던 세력은 참여를 하지 않다가 6·10대행진 이후 결합하게 된다.[2)]

1987년 들어 지역의 종교계는 물론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세력 역시 각기 다른 운동의 역사와 맥락을 내재한 채 각자의 영역에서 독자적인 투쟁의 흐름을 만들어갔다. 가톨릭교회, 기독교, 불교 등 지역의 종교계는 5·18구속자협의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과 함께 5·18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에 앞장섰다. 이와 함께 4·13호헌조치 직후인 4월 17일 광주대교구(임동성당)에서 소속 신부들은 '성요축미사'를 올린 뒤 투쟁결의를 선포했고, 이후 지역 종교계는 전국적 네트워크를 통해 타 지역과 연계하면서 단식기도회, 5·24 금남로 노상 예배, 5·18 원각사 추도법회, 5·18사진전 등 각종 집회와 대중행사를 통해 전두환 정권 퇴진에 앞장섰다.

광주지역 노동운동세력 역시 남양어망, 5개자동차부품, 한국에르나, 무등양말, 로케트전기, 서광택시 등을 중심으로 임투와 해고자복직투쟁을 전개하는 가운데, 남해어망노조(임미령 위원장)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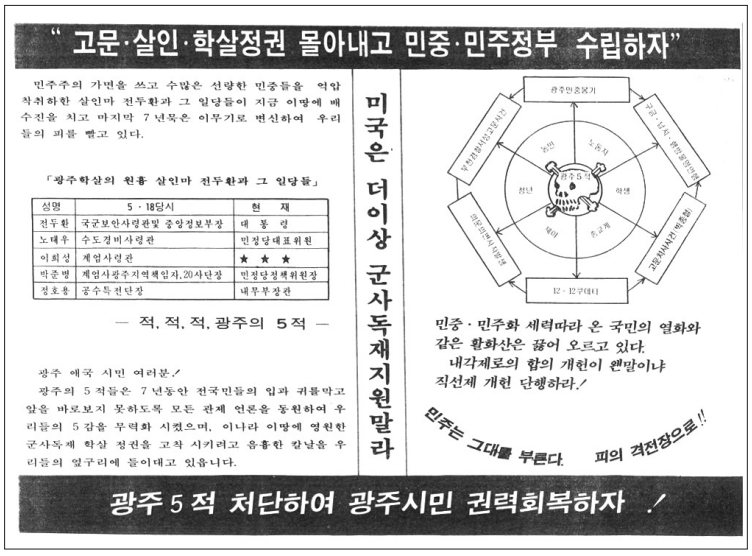
2) 최평지는 2012년 광주·전남 6월항쟁기념사업회 창립 및 6월항쟁 25주년 1차 토론회에서, 1987년 초반 "정치권에서는 개헌안의 내용을 놓고 야당내부부터의 혼란이 있었고, 이를 틈타 전두환 군사정권은 급기야 87년 4월 13일 호헌 조치를 천명하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거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군사정권의 강경노선 천명에 민주화운동세력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강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자는 움직임이 일부에서 대두하기도 하였다. 광주에서도 민주회복 국민운동 전남지부 중심으로 상황을 지켜보자는 견해가 있었으나, 전사협 가입조직을 중심으로 종교지도자, 교수, 학생운동권이 합의해 민주회복 국민운동 측을 제외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민주헌법 쟁취 도민운동 본부'를 결성하기로 합의하였고, 민주회복 국민회의 측 일부 실무자들도 합류하였다."고 밝혔다(최평지, 2012, 24-25).

주축으로 4개 노조가 4·13조치 반대성명을 발표했다(진실 1987/05/23). 또한 지역 노동운동세력은 3월 8일 하남공단 노동자 표정두의 분신사망 추도회를 거쳐 5·18 7주기 투쟁을 계기로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의 전면에 나섰다. 농민운동 역시 1986년 한미통상협상에 의해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이 가시화되자, 87년도에 들어서서 수입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그 연장선에서 전두환 정권을 반농민적 정권으로 규정하고 농가부채탕감, 농협의 민주화, 마늘 양파 생산비 보장 등 농민생존권투쟁과 4·13호헌철폐투쟁을 결합시켜갔다(민주헌법쟁취 전남농민선언, 1987/07/29).

이와 같이 1987년 무렵 광주지역의 운동대오는 그 내부에 다양한 운동의 결과 차이를 내재했다. 때문에 종교계, 대학생, 청년, 노동자, 농민운동세력 등은 자신들이 처한 주객관적 상황 속에서 독자적인 정세인식과 상황 판단을 가져가면서 서로 다른 투쟁의 흐름을 보였다. 동시에 그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 부문운동의 특성을 살려 각자의 영역에서 현실의 모순과 고투하면서도 정치적 이슈로 급부상한 박종철고문치사사건 및 4·13호헌조치 등을 매개로 전두환 정권 퇴진운동에 공동전선을 형성했다.

이 공동전선의 형성에 있어서 광주지역의 특이성은 80년 5·18의 경험과 기억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지역의 특성상 대학, 사회단체, 노동, 농민, 종교계의 활동가들이 선후배 관계 속에서 일정한 동지적 유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도 소통과 협력을 용이하게 했던 요소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87년 6월항쟁 전야에서 6월항쟁 기간 내내 광주 시민들의 저항은 '호헌철폐'나 '민주주의 쟁취'라는 정치구호 이전에 5·18학살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을 의미했다. 1987년 2월 7일 도청앞 YMCA에서 개최된 "故 박종철열사 추모제 및 고문살인 범도민 규탄대회"의 유인물에는 "광주5적 처단하여 광주시민 권력회복하자!"라는 슬로건이 게재되었다.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진상규명' 투쟁을 홍보하는 거의 모든 유인물은, 이 사건을 80년 5월 광주와 결부해서 이 문제의 해결이 곧 5·18학살자를 처벌하는 것과 같은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광주는 지금도 계속되

〈그림 1〉


"고문·살인·학살정권 몰아내고 민중·민주정부 수립하자"

민주주의 가면을 쓰고 수많은 선량한 민중들을 억압 착취하한 살인마 전두환과 그 일당들이 지금 이땅에 배수진을 치고 마지막 7년묵은 이무기로 변신하여 우리들의 피를 빨고 있다.

「광주학살의 원흉 살인마 전두환과 그 일당들」

성명	5 · 18당시	현 재
전두환	국군보안사령관및 중앙정보부장	대 통 령
노태우	수도경비사령관	민정당대표위원
이희성	계엄사령관	★ ★ ★
박준병	제업사광주지역책임자, 20사단장	민정당정책위원장
정호용	공수특전단장	내무부장관

— 적, 적, 적, 광주의 5적 —

광주 애국 시민 여러분.!

광주의 5 적들은 7 년동안 전국민들의 입과 귀를막고 앞을 바로보지 못하도록 모든 관제 언론을 동원하여 우리들의 5 감을 무력화 시켰으며, 이나라 이땅에 영원한 군사독재 학살 정권을 고착 시키려고 음흉한 칼날을 우리들의 멱구리에 들이대고 있읍니다.

미국은 더이상 군사독재지원말라

민중·민주화 세력따라 온 국민의 열화와 같은 활화산은 끓어 오르고 있다. 내각제로의 합의 개헌이 웬말이냐 직선제 개헌 단행하라.!

민주는 그대를 부른다. 피의 격전장으로!!

광주 5 적 처단하여 광주시민 권력회복하자 .!

〈출처: 『87 광주전남 6월항쟁(자료집)』 Ⅱ〉

〈그림 2〉

5.18 정신계승을 위한
400만도민 민주화 대행진

호헌이 웬말이냐 4·13조치 철회하라!

5월학살 원흉 전두환 일당을 몰아내자!
5월학살 배후조종 미국은 물러가라!
장기집권 호헌책동 군사독재 타도하자!
독재지원 내정간섭 미국은 물러가라!

400만 애국도민여러분!
5월14일 4시에는
도청앞에서 한데 모여
중앙로 시민관 계림5거리
서방시장→망월동으로
힘차게 행진합시다.

400만 애국도민 여러분!

민주주의와 민족통일 우리모두 인간답게 살아보자던 광주민중의 용감한 투쟁이 온 천지를 뒤흔들던 환희의 5월 승리의 찬란한 5월이 우리앞에 성큼 다가왔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5월을 송장로 짓밟고 들앉힌 전두환 군사독재는 국민위에 군림하여 폭력과 구금, 고문을 일삼다가 급기야는 모든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속에서 표출된 개헌열기를 짓밟게고 4.13호헌조치를 발동하였읍니다. 이는 말하고 살아도 말할수 없는, 듣고 살아도 진상을 들을수 없는, 보아고 살아도 보일 수 없는 현행헌법을 가지고 폭압통치를 계속하겠다는 협박으로서 전국민의 저항을 불러 일으키고 있읍니다.

보십시요! 공장에서 미싱사고로 노동자, 거리에서 쇠주는 손전기사, 구슬땀 흘리는 농민의 목소리, 청년 학생들의 헌신적인 투쟁, 신부·목사님들의 처절한 단식, 교수님들의 광렬한 시위운동을!

400만 도민이 일장에서 전국민과 함께 싸운다면 우리는 군사독재의 4.13조치를 물리치고 국민모두의 권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세상을 만들 수 있읍니다. 우리모두 민주화 대행진에 참여하여 빛난 승리의 깃발을 들읍시다.

전남시회운동협의회
5.18 광주의거 유족회
5.18 광주의거 청년동지회
전남기독교농민회
가톨릭농민회 전남연합회 함평농우회
광주노동자위원회
전남기독청년협의회
인문문화연구회
불교승가회
함평노동청년회 전남연합회
기독노동자 전남지역연맹
기독교장로회청년회 전남연합회
예수교장로회청년회 전남연합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광주지부
전남목회자 정의평화위원협의회

〈출처: 『87 광주전남 6월항쟁(자료집)』 Ⅱ〉

고 있다", "5·18광주의거 정신 계승하면 민주주의 쟁취된다"는 기치 역시 87년의 국면을 80년의 연장선에서 바라보는 광주지역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4·13호헌철폐투쟁 역시 5·18의 맥락 속에서 비판되기는 마찬가지였다.

대학운동세력의 정세인식뿐만 아니라, 지역의 종교계 역시 87년 4·13호헌조치를 80년 5월의 경험 속에서 그 연장선에 있는 사태로 이해하기는 마찬가지였다. 5·18 이후 지역의 기독교 청년활동에 참여하고 6월항쟁 당시 전남지역 국본 재정부장으로 활동한 김○○ 역시 당시의 정세인식 및 논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 4·13호헌이 터지니까, 4·13문제는 5월항쟁 당시에 우리가 항복하라할 때, 항복할 수 없었던 것은 뭐냐면, 원래 최규하가 담화문을 통해서 민주일정에 따라서 국민투표로 개헌을 해갖고, 거기에 따라서 민주정부를 수립하겠다 그랬어. 근데 우리가 딱 들어보니까, 휴전선에서 아마 총소리가 좀 나고, 간첩단 사건이 발표가 되고, 그러면서 공장이나 아니면 여러 군데서 시위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를 혼란으로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 해가지고 그때만해도 이미 인자, 10·26 이후에 비상계엄 상태지만, 비상계엄은 제주까지 확대할거다, 확대하면서 전 국토를 비상계엄체제로 만들면서 민주주의 인사들을 잡아갈거다, 인게 인자 아주 상식화돼있었거든. 그러고 5·18이 터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거냐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총을 들었단 말이야. 근데도 우리가 항복할 수 없었던 것은 그때 약속했던 것대로 가면 될 것 아니냐. 글고 그 와중에서 희생당했던 사람들을 전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주라, 국가에 지금 장례를 치러주라. 글고 구속했던 사람들도 석방해라. 이런 요구들이 계엄사하고 했던 협상 내용인데, 그놈들이 무차별 진압을 해부렀단말이요. 그래서 수 백명이 죽었어. 근데 이놈들이 뭐냐하면 광주를 희생 제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건 그때 우리들 판단이었고, 7년 동안 계속해서 바로, 그런 국민투표에 의한 민주정부 수립을 요구를 한거예요. 계속 해왔는데, 나중에 전두환 임기가 7년이 끝나가는 판국에 또다시 뭐냐하면 체육관 선거를 하겠다는거 아니라고, 유신헌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제2의 항쟁으로 가야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논의가 시작된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하튼 결사를 일삼은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다. 5월항쟁 때 시민군들이 왜 총들고 죽을줄 알면서도 싸웠냐, 뭐 그런 논의로 진행되고 있었죠(김○○ 구술증언).

심지어 노동자들의 임금투쟁 조차도 5·18의 정신을 계승한 것으로 의미화 되기도 했다. 한 사례로 한국기독노동자전남연맹(기노련) 기관지 『진실』은 광주시 양산동에 서광택시 운전자들의 미지급 임금투쟁이 노조 가족들과 비노조원들의 파업 동참으로 승리했다는 기사를 실었다. 흥미롭게도 기사는 이 단결투쟁의 성과와 의미를 강조하면서 5·18을 소환하고 있다.

> 광주 4천여(5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영업용택시 노동자여. 그리고 2천여 개인택시 노동자여! 우리는 80년 광주항쟁당시 세계사의 기록에 남는 운수노동자의 민주화 투쟁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이번 서광택시 기사님들의 단결로서 승리를 쟁취한 가열 찬 투쟁을 지켜보면서 '운짱들은 단결하지 못한다'는 불신을 종식시키고 단합된 투쟁을 통해서 개인의 조그만 이익과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합시다. 어용노조의 민주화와 각 사업장 내에서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리쟁취 그리고

우선 우리의 장시간 노동과 생명을 내던지는 과속운전에서 해방되기 위해 최소한의 생계비(노총발표 4人 기준 524,000원)라도 보장되는 완전 월급제를 쟁취합시다(진실 1987/04/01).

이와 같이 6월항쟁 이전부터 대학운동세력은 물론 노동계, 농민, 사회단체 등 광주지역 각 부문운동에서 5·18은 자신의 투쟁을 정당화하는 원천적 경험과 자료로 동원되고 있었다. 사회의 제반 현실을 80년 5월의 경험과 기억 속에서 규정하고 해석했던 이와 같은 양상은 그 만큼 광주지역 사회가 5·18에 대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면서, 5월의 상흔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共感帶) 속에서 운동세력의 정치·경제·사회적 의제를 대중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매개이기도 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실제 광주지역 전선체운동에 중심에 있던 전사협은 기관지 『광주의 소리』를 통해 "5월은 4·13호헌조치 분쇄를 통해 부활한다"는 기치와 함께 7주기 5월투쟁이 반드시 호헌분쇄투쟁과 결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광주의 소리 1987/05/25). 5월 23일자 『광주의 소리』에는 "잊지말자 80년 5월"이라는 문구와 함께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라는 노래 제목과 함께 그 가사가 아래와 같이 제시되었다.

외로울때면 생각하세요.
피로물든 광주 5월을 생각하세요.
잊을 수 없는 5월을 찾아 나도 몰래 금남로를 헤멘답니다.
목터져라 민주주의 불러 보면서 나도 몰래 두 주먹을 불끈 쥔 것은
잊을 수가 없었던 우리들의 5월이 가슴에 남겨진 까닭이겠죠.
아~ 아~ 광주 5월을 생각하세요(광주의 소리 1987/05/23).

박종철 고문치사사건과 4·13호헌조치로 조성된 정세를 80년 5월의 경험과 기억 속에서 바라봤던 광주지역의 정서는 6월항쟁에서도 자연스럽게 반복되었다. 특히 6월항쟁 당시 치열한 거리시위의 양상은 5·18의 회상을 거쳐 해석되었다.

광주라는 특성이 뭐냐하면은 지역 자식이잖아요 자식. 자기 자식이 대학을 다니고 또 이러니까 5·18때도 그렇죠. 그런 것이 강했거든요. 우리 자식인데 느그들 왜 그러냐. 긍께 그런 측면에서 달라들기 시작했죠. 못 잡아가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다보니까 아 이 싸움에 자신이 생긴거죠. 그리고 하고 있으면은 막 위에서 우유나 빵이나 날라들고, 또 후배들 가면은 고등학생들이 돈을 막 넣어줘 갖고 한 20만원 받아 온 놈도 있고, 주위에서 하고, 엄청 지원이. 그동안에 상당히 분리 돼 있다가 시민들이 아 우리가 학생들만 희생할 수 없다. 우리가 나서야 된다. 이런 것에서 상당히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끌려가는 걸 보면서 한 것 같애. 전선이 막 형성이 돼버린 것 같애(조○○ 구술증언).

좌우간 (6월)1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싸움이 진행이 됐는데, 그때는 보면은 싸움이 좀 재밌었죠. 수월하고. 그때, 제가 5·18 그때 그런 느낌이 왔어요. 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80년 5·18때도 보면은 시민들이 공수부대들 달라들어도 시민들이 안 물러서니까. 애들이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까 와 달라들어가지고 결국에는 공수부대들이 쉽게 못 죽이는 거죠. 총검 착검해갖고 달라들(지) 못하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거의 진압을 엄두를 못 냈다고 봐야죠. 5·18하고 비슷했어요(조○○ 구술증언).

당시에 시모라고 있어요. 시모라고, 시민 자발적인 전투모임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벙거지 모자 쓰고, 시모 대장이 벙거지 모자 쓰고, 나이가 한 20대 중반이나 됐을거예요. 다부지고. 그래갖고 그 주위로 한 10여명이 시모야 시모야 그러면 딱 시모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도 상당히 전투력이, 화염병을 네 개씩 차고. 물어보면 직업도 없고 상당히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 나이가 한 20대 초반 10대 말. 5·18때도 그런 분들이 많이 또 돌아가시고 그런 거시기였는데, 그때도 보면 상당히 그 분들을 보면 존경스럽게 열성적으로 싸우고 막하고(조○○ 구술증언).

고교시절 전대사대부고를 다니며 바로 옆 전남대 교정에서 벌어진 5·18의 참상을 목격한 증언자에게 6월항쟁은 늘 5·18의 경험과 기억을 거쳐 인식되고 있다. 6월 16일 이후 대중과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해 폭력시위에서 비폭력 연좌시위로 전술을 바꾼 전남대학교 학생들의 투쟁에서도, 학생과 시민들 간에 연대의 정서와 끈끈한 결속에서도, '시모(시민 자발적인 전투모임)'로 상징되는 도시 하층의 룸펜 프롤레타리아의 저항도, 모두 80년 5·18과의 비교 속에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같이 87년 6월은 광주지역민들에게 80년 5월과의 대화 속에서 인식되고 있었다.

6월항쟁 당시 전남국본의 재정부장으로 활동한 김○○의 경험담 역시 5·18이 6월항쟁 속에서 재등장하는 한 사례를 보여준다. 치열한 시위를 추동하는데 있어 선배의 5·18에 대한 경험과 기억은 후배들에게 적지 않은 자극과 용기를 촉발시켰다.

나는 인자, 우리 기독교쪽은 중앙교회, 금남로를 맡고 있잖아. 그래서 금남로를 딱 가서 그날은, 왜그냐면 저녁시간이니까 사람들 만나서 돈을 걷으러 다녀야 하잖아. 그날은 한빛교회에서 딱 집회, 신학 강좌하다가 시간되니까 딱 고놈들이 같이 따라 왔어. 아이 근디, 지랄탄을 빠바박 쏘니까, 막 금방 또 도망쳐불어 요놈들이. 그래갖고 기양 열받어갖고, (…) 불러다가 '니기들 새끼들, 우리는 5·18때 공수들하고 맞짱 떴다. 공수들 깨부렀다. 근디, 세상에 저 지랄탄 몇 개 갖고 도망을 쳐야?' 그래갖고 '너희 새끼들, 조 불러다가 확실하게 해라.' 긍께 요놈들이 그날 돌아가갖고 빳따를 쳐분거야. 그래갖고 그 다음날, 나는 말을 거기까지만 했는디, 요놈들이 열받어갖고 조장들을 빳따를 쳐분거야. 그 다음날 들어온디 가서 한쪽에서 보고 있는디, 지랄탄 빠바박 쏘잖아, 쏘면은 그 뭐야, 지랄탄 쏘는 순간부터 흩어지잖아. 근디, 근디 앞에 선봉대 애들이 항상 앞에 선단말이여. 서가지고 뿌옇게 안개가 끼잖아. 끼면 그것이 어느정도 이렇게 좀 걷힐라하면, 그 순간에 백골단들이 와 하고 달려오잖아. 막 달여온디, 앞에 안개가 걷어진디, 거기에 요놈들이 딱 서 있거든. 지기들은 방독마스크 쓰고 있잖아. 근디 요놈들이 방독마스크도 없이 그대로 딱 서있으니까, 쫓아온거야. 어, 하고 있는디, 눈앞에 딱 오니까, 그때 지기들은 10미터까지 오는 걸 기다렸단디, 10미터도 안됐는디, 돌격 근께 그대로 쳐들어간거야. 와 하고 쳐들어간께 백골단들이 도망쳐불었어. 긍께, 금남로가 뻥 뚫려분거야. 그래갖고 최초로 금남로를 우리 기독선봉대가 뚫어부렸어(김○○ 구술증언).

하지만 증언자들에게 6월항쟁이 5·18의 잔상으로만 남았던 것은 아니다. 조○○에게 6월의 전민항쟁은 5·18의 싸움과는 이질적인 사태로 인식되기도 했다. 투쟁이 고조되어 전민항쟁으로 발전하자 계엄령에 대한 유언비어가 확산되어갔다. 5·18학살의 경험을 새긴 증언자에게도 계엄령은 공포로 다가섰다. 지역 사회단체에서는 이미 국민운동본부의 상층과 종교계가 위축되고 있었고, 학내에서도 5·18을 경험한 예비역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그에게 6월은 5·18과는 확실히 다른 상황으로 보였다.

> 그래서 실제로 싸움이 진행되고 이렇게 하는, 뭐냐면 자연발생적으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모든 걸 다 한 것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설사 계엄령이 선포되더라도 다시 5월, 또 전국적인 이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광주가 고립됐잖아요. 그런 부분. 그렇게 때문에 우리가 정세판단을 했을 때는 계엄령이 선포되기 힘들거니와 선포되더라도 한 번 붙어볼만 하다. (…) 절대 이것은 우리가 질 수 없는 싸움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조○○ 구술증언).

증언자에게 1987년 4월에 시작되어 6월 전민항쟁의 단계로 발전되었던 투쟁은 더 이상 1980년 5월 광주와는 다른 사태로 인식되고 있다. 고립된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전국적 연대 속에서 광범위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준 상황이었다. 이렇듯 광주의 지역민들에게 87년 6월은 80년 5월과 닮은 듯 다른 모습을 갖는 것이었다.

III.
광주가 경험한 6월항쟁

III. 광주가 경험한 6월항쟁

광주지역의 6월항쟁은 운동의 추진 동기와 맥락 자체가 타 지역과는 다른 요소들을 내재하고 있었다. 실제 6월 이전 광주지역 대중 집회에서 뿌려진 유인물의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광주의 6월은 호헌철폐, 독재타도로만 귀결될 수 없는 또 다른 정서가 강하게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5·18에 대한 상흔과 한이었다. 투쟁의 시작과 끝이 다른 지역과 달랐던 것도, 투쟁의 리듬과 지속성이 차이를 보였던 것도 80년 5·18의 문제가 중심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사태를 해석하고 그 해결을 위해 투쟁을 조직했다.

실제 지역 운동의 선두에서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쟁을 이끌었던 전남대 학생운동세력의 투쟁방향과 노선은 이를 잘 보여준다. 1987년 3월 17일 전남대는 5·18문제의 해결을 염원하는 지역민들의 열망을 배경으로 전국 대학에서 가장 먼저 투쟁위원회(반외세 반독재 구국학생투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후 다른 지역과는 전혀 다른 투쟁 경로와 투쟁 방식을 보여주다 6월항쟁의 국면을 맞이했다(박세종, 2017, 8).

전남대 학생운동은 1986년 말부터 1987년 초 무렵 겨울방학을 거치면서 내부의 사회구성체논쟁과 운동노선의 차이에 따른 분열을 극복하고, 3월 새학기 시작과 함께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대중으로부터 대중에게로'라는 기치 하에 운동대오를 재정비했다. 이를 통해 학내 조직역량을 확대하면서 3월 투쟁위원회를 출범하고, 이어 4월 13일 호헌조치 발표 당일부터 6월 29일까지 지속적인 대중투쟁을 실행했다. 1987년 전남대 학생운동의 조직 책임자의 일원으로 활동했던 조○○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 저희들이 전대 학생운동에서 봤을 때, 6월항쟁이란 것은 뭐냐면은 짧게는 4월 13일부터 6월 29일 여기까지 기예요. 그니까 저희들이 당시에 집중적으로 했던 것은 4월 19일, 4·19투쟁을 기점으로 해서 5·18로 확대시켜가지고 전국적인 투쟁을 일으키자. 저희들은 처음에 그렇게 기획을 했었죠.

(…) 근데 4월 13일 호헌발표, 이것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4월 한 10일경부터 상당히 내부에서 그런 논의를 진행했죠. 4월 13일 호헌발표를, 4월 13일 날 기자회견이 예견이 됐는데, 전두환이가 호헌발표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개헌 쪽으로 갈 것인가 이런 내부 논쟁을 했는데, 우리는 거의 호헌으로 간다. 그 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4월 13일 우리 모든 봉기의 총역량을 동원하자. 그렇게 내부적 결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4월 12일 날 저녁에 유인물도 싹 만들어 놓고, 총학생회나 투쟁위원회 전부 해가지고 이때부터 우리가 결사항전을 하자. 전부 다 해가지고 아침에 발표를 나오자마자부터 4월 13일부터 투재에 돌입하게 됐죠.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도, 전국적으로 최초로 아마 싸움을 했을 거예요(조○○ 구술증언).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1987년 전남대 학생운동세력에게 있어서 6월항쟁은 사전에 기획된 일련의 투쟁의 흐름 속에서 예상치 않게 등장한 한 개의 투쟁으로 인식되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이 계획한 투쟁이 6월항쟁을 그 종착점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5월투쟁을 계기로 전두환 정권에 대한 전국적 저항을 목표로 했다는 데 있다.[3] 다시 말해 87년 당시 광주지역 운동세력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전남대의 투쟁은 애초 그 계기와 맥락이 5월투쟁의 전국화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6월항쟁으로 가는 흐름과는 상이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전남대 학생운동세력의 투쟁 개시와 종료는 물론, 투쟁의 템포와 리듬 역시 타 지역 학생운동의 경로와는 상당한 차이를 갖게 되었다.

한 사례로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의 주요 거점 도시에서 '6·10대회'를 전후로 대규모의 시위가 전개되었을 때 광주지역은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이 때 전남대학교는 6월 9일부터 11일까지 학생축제인 대동제를 진행했다. 전국적 항쟁의 흐름과는 엇박자이지만 전남대 학생운동세력의 투쟁 맥락에서는 현실적 판단을 내린 것이었다. 4·13호헌조치로 시작된 투쟁이 5월 말까지 50일 정도 지속되는 동안 시위 도중 연행된 학생들로 인해 운동역량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 학우들은 연일 계속된 투쟁으로 지쳐있던 시점이었다. 열린 대중적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전열을 재정하기로 한 조직적 판단에 의해 전남대 학생운동세력은 대동제에 집중했다. 이후 전남대는 6월 15일 비상학생총회를 거쳐 16일부터 대중투쟁을 재차 전개해갔다. 이렇게 재점화된 투쟁은 타 지역의 투쟁이 소강국면으로 들어간 6월 26일 이후까지 계속되었다.

당시 상황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총무부장이었던 고○○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시 6월항쟁 국면에 이르는 전국적 투쟁을 보면 타 지역, 특히 서울지역과 전대(광주)의 투쟁 흐름은 최고조에 이르는 과정과 시기가 차이가 있었다. 전남대는 내부적으로 4월 호헌철폐투쟁과 5월투쟁에 총력(철야농성, 단식투쟁, 본부점거투쟁, 5월 7일~27일 전 기간에 걸쳐 진행된 투쟁, 오투위 전원 체포)을 다하면서 조직적 손실에 따른 조직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고, 더군다나 서울지역에서 최대 규모의 투쟁이 진행되었던 6·10대회 전후시기에 전남대의 경우 총학생회의 대동제가 배치되면서,

3) 당시 조선대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또 다른 증언자 역시 6월의 투쟁을 기존 싸움의 연장선으로 이해했을 뿐 전민항쟁이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박○○ 구술증언.

물론 대동제 기간에도 자체 투쟁을 조직하고 6월투쟁에 적극 결합하였지만,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전면적인 정치투쟁국면을 조성하여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광주지역 사정은 서울 등 여타의 지역과 다르게 전남대를 제외하면 대규모 시민투쟁을 추동할 학생운동조직(조선대의 경우 학내상황이 매우 열악하였고 학원 민주화투쟁에 총력하고 있었음)이 존재하지 않았고, 지역의 조직과 종교단체 등 사회단체가 최선을 다해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었지만, 경찰력을 뚫고 시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시민들의 광범위한 투쟁참여를 선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일부 지역 인사들이 대동제 기간 중 전대가 투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문제를 문제제기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초기 87년 6월 전국투쟁의 중심이었던 서울지역의 경우 명동성당투쟁 이후 6·10시민항쟁의 투쟁국면을 이어가지 못하고 다소 소강상태로 접어들어 산발적 투쟁에 머무르는 상황이었고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지역투쟁으로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전국적인 상황과 객관적으로 조성된 정치 환경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던 다수 학생대중을 단기간에 투쟁으로 집결시키기 위해 간부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줄 선도적인 투쟁이 필요한 상황에서 총학생회장과 총여학생회장이 삭발을 결의하였고, 총여학생회장의 긴 생머리는 학생들이 마음을 움직이기에 딱이었다. 당시에 혈서는 계획이 없었는데 누군가 삭발이 진행되는 와중에 갑자기 앞으로 나와 자신의 셔츠를 멋어 혈서를 쓰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뒤에 누군가 천을 구해와 현수막을 만들어 많은 학우들이 혈서시위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구술증언).

투쟁의 계기와 과정상의 차이뿐만 아니라, 6월항쟁의 경험과 그것에 대한 인식 및 평가 역시 타 지역과는 다른 성격을 보였다. 광주지역민들에게 6월항쟁은 1차적으로 5·18학살자를 응징하고 맺힌 원한을 풀 기회로 생각되었다. 때문에 집회와 시위의 구호가 타 지역과 달랐을 뿐만 아니라, 시위의 완강함이나 지속력 역시 차이를 보였다. '6·10대회'로 투쟁이 고조될 당시 진행된 전남대 대동제의 기치는 "민족전대! 망월의 눈빛으로 반도의 어둠을 불사르리!!"였다. 당시 광주지역의 시민과 학생들에게 전두환 정권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과 '4·13호헌조치'를 넘어, 근원적으로 1980년 5월 학살의 경험으로 신체에 각인되어 있었다.

그니까 지금 6월항쟁이 광주같이 끈질기게 한데가 없죠? 내가 보니까, 끝까지 한 데가 드물드라고. 당시에 저희들이 6월항쟁을 봤을 때, 서울은 인권적, 도의적 차원의 인권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은데, 저희들은 군부독재 퇴진, 5월 학살 원흉척결 이런 문제로 6월항쟁을 받아들이고 계속 참가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 사람들도 그러고 구호도 그러고. 뭐야 전두환이 물러가라, 이것이 1번이여. 군부독재 타도하자 군부독재 타도하자, 이거. 호헌철폐 독재타도도 상당히 많이, 지금 호헌철폐 독재타도 직선쟁취, 이런 것이 주요 구호였잖아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근데 좌우간 광주는 광주학살 원흉 전두환 처단하자, 군부독재 퇴진하라, 좌우간 전두환 퇴진 이런 구호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와 버려요. 광주학살 뭐 또, 중간에 배후조종 미국은 물러가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 그 동안에 87년, 80년 5·18부터 87년 6월항쟁까지 거의 한 7년 동안인데, 계속 5월만 되면 싸워왔잖아요. 싸워왔는데 계속 막혔죠. 실제로 87년 5월 달에도 원각사 앞에서 모여 갖고 했는데, 계속 최루탄 까가지고 안에까지 들어갔는데도 또 끌려가고 잡혀가고, 또 하고 여기서 시위

하고 저기서 시위하고 막 몰려다니면서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이 한이 맺힌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5월 그 항쟁의 해결의 기점, 이런 문제로 보지 않았느냐, 다른 지역하고 달리(조○○ 구술증언).

시위양상이나 시민의 참여 역시 5·18의 경험 속에서 비교 대조되어 인식되기는 마찬가지였다. 특히 방송차량을 통한 시내 선전활동이나 퇴근 후 저녁 무렵에 시내 주요 상황(투쟁)의 발생지로 습관처럼 모이는 시위문화와 풍경 등은 80년 5월과 오버랩(overlap)되어 기억되고 있었다. 6월항쟁 당시 일반 시민으로 시위에 참여했던 구○○(최루탄부상자협의회장)는 광주지역 시위가 타 지역에 비해 치열했음을 강조하면서, 그 치열한 시위의 배경에는 광주 시민의 적극적 호응과 지지가 있었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반 시민의 호응과 지지는 80년 5월의 경험으로부터 일정하게 학습된 것으로,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평가한다.

굉장히 광주는 시민들 호응이 타지역에 비해서 적극적이었죠. 그래서 아마 저놈들이 더 악랄하게 애들한테도 최루탄, 사과탄을 던지고 셔터 닫는데도 사과탄을 던지고, 더 악랄하게 했던 이유가 그런 거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 시민들이 모두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까침에 보셨던 병원, 개인병원에서 진료기록들 보면은, 그 많은 병원들이 정말 뭔가 대가도 바라지 않고 무상으로 다 치료를 해주고 무상으로 다 해주고 필요로 하다면 소견서 써서 해주고. 많은 병원들이 그렇게 했었고, 병원이건 어디건 그걸 떠나서, 광주에서는 전부 다 하나였죠. 하나. 5·18 겪으면서도 그랬었지만, 그런 것들에서는 굉장히 단결된 모습들이었고, 우리가 5·18 이야기하면서 대동세상 이야기하는데 그마만큼 공동체가 형성이 돼버린거죠. 한번 우리는 공동체를 겪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쉽게 만들수가 있었고, 또 시내에서 아무리 장사하는 사람들도 매출이 급감하겠지만, 그러드라도 그 사람들도 계속해서 물을 제공하고 또는 시위에 필요한 용품들을 제공하고. 솔직한 말로 그 많은 화염병 만들기 위한 소주병이 어디서 다 나왔겠어요? 그거 전부다 장사하신 분들이 제공한 소주병들이고, 그런 것들이지(구○○ 구술증언).

마찬가지로 6월항쟁 당시 전남국본 사무차장이던 최○○씨는 항쟁 당시 광주의 분위기를 80년 5월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독특한 시위문화로 설명한다.

우선 87년 6월항쟁에서 가장 고마운 분들이야말로 광주시민들이죠. (…) 5·18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광주시민들은 집회나 가두투쟁에 대한 남다른 이해나 대처 능력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집회나 시위, 가두투쟁을 하다가 전경에서 시위대가 밀리면, 어느 가게로 들어가도 전부다 가게 안에다 넣고 셔터를 내려서 시위대를 보호해줄 준비가 다 되어있고, 그 다음에 그때는 최루탄을 하도 많이 쏴대니까 물, 치약,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그냥 무료로 전부 다 시위대에 나눠주는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었구요. 그 다음에 가두에서 또 모금이 많이 됐습니다. 모금이 많이 됐고, 일부는 국민운동본부로 직접 성금을 가지고 오신 분들. 기억이 남는 것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정당에 후원금을 냈다고 알려진 기업들이 있어요. 그때, 그때 금호고속도 마찬가지고, 광주에서는 금호고속. 그

다음에 택시회사들 중에 신흥택시, 광주에서 가장 큰 회사들입니다. 삼일택시, 광주택시, 아세아택시, 이런 곳들이 민정당 후원회원이다드라 이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광주시내에서 공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신흥택시 같은 경우에는 집중공격을 받아서 차가 한 세대 정도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국민운동본부로 찾아와서 이건 사실이 아니고 와전된 거니까, 국민운동본부에서 시민들을 좀 자제시켜달라, 해서 저희가 별도의 성명서로 시민들을 자제시켰던 것도 있고, 그때는 광주시청하고, 아니 전라남도청하고 국민운동본부하고 예를 들면 권력이 거의 반반입니다.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그래서 상당히 많은 운동자금들이 모여졌었고, 제가 주로 집회를, 상황을 전부 파악하고 전파를 하는 역학을 했기 때문에 YMCA 6층으로 시내에 나가 있는 정보전달조들이 전부 전화가 옵니다. 그 전화가, 지금도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있는데, 56국 5525입니다. 그때 그 전화가. 그 전화를 대개 많이 활용해서 연락이 오면 지금 경찰과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어떻게 되니까, 시위대는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거기서 쭉 전파를 했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시내는, 지금은 거기가 없어졌습니다마는, 한국은행 사거리, 그러니까 원각사 옆에 보면은 2층에 충금다방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충금다방에 그 전화를 주로 활용을 해서 거기가 운동권 지인이 운영하는 다방이었고, 그 여주인이 지금 요즘에 신문에 떴던 화랑궁 식당의 여주인입니다. 그 충금다방했던 그 사람이. 그래서 거기 전화를 활용하고, 우리가 걸때는 공중전화를 쓰고, 걸려온 전화는 거기 전화로 받고. 그 다음에 YMCA 뒤에 가면은 진내과 7층에 음악감상실 베토벤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지금 5·18 어머니집 노○○ 관장님이 운영하던 음악감상실이에요. 그래서 거기 전화를 또 이용해서 시내, 시위 상황을 전부 다 이렇게 하고. Y 6층이 본부였고. 그렇게 했었고. 그때는 5·18 경험으로부터 배운 광주시민들의 시위에 참여하고 협조하는 이런 것들은 다른 어떤 도시보다 훨씬 남달랐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래서 저는 광주시민이 예를 들면 6월항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주역이었다. 예를 들면 대개는 시위하고 그러면 장사 안 되고,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피곤해 하잖아요, 근데 그걸 광주시민은 다 기꺼이 감수를 했으니까(최○○ 구술증언).

항쟁의 리듬이나 참여 지역민의 시위문화에 대한 인식 및 정서의 특이성과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은, 광주지역 6월항쟁이 독재타도와 '민주주의 쟁취'라는 기치 아래 다양한 집단과 주체의 현실적 삶과 생활의 이해관계 및 계기 속에서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즉 항쟁 기간 내내 외쳤던 '민주주의'라는 기표는 전두환 군부독재정권이 억압하고 있던 기층 지역민의 다양한 사회변화의 열망을 내재한 것이었다.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통일된 구호가 함축한 변화의 계기와 지향은 다층적이며 복수적이었다. 6월항쟁과 그 뒤를 이은 노동자, 농민, 청년, 여성, 교사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의 조합결성 및 시민활동의 분출 양상은 역으로 6월항쟁이 그 내부에 다양한 주체의 변화 열망에 의해 추동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준다.[4] 실제 1987년 대학생, 노동자, 농민, 청년운동 세력 등은 자신들의 삶

4) 6월항쟁 이후 7~8월 노동자, 농민의 대투쟁 및 한국 사회 각계각층의 민주화운동 및 연말 선거 국면에서 제기되었던 다양한 요구들은 6월항쟁 참여세력들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6월항쟁의 의미에 대한 각 부문운동의 해석은 물론 대선에서의 활동 등은 자신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었다. 때문에 6월항쟁 이후에도 노동계와 농민운동세력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생존권적 투쟁을 이어갔다.

과 직결된 이해관계 속에서 전두환 정권을 인식하고 비판했다. 삶의 현장이 곧 전두환 정권과 직결되어 규정되거나 해석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삶의 생존권적 투쟁이 곧 정권타도투쟁으로 확장·발전되었다.

전남대학교와 함께 광주지역의 또 다른 주요 대학인 조선대학교 학생운동세력은 학내의 억압구조를 전두환 정권의 폭압성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학내문제와 정치투쟁을 결합시켜 갔다.

> 전두환 정권의 폭압성이나 억압적인 상황이 조선대학교하고 똑같아요. 조선대학교도 그만큼 박철웅 체제가 공고했고, 폭압적이고 억압적이었거든요. 이게 사회에서 느끼는 문제나 학교에서 느끼나 똑같아요. 조선대학교나. 그 때문에 그것이 딱 구별해서 사회문제하고 학교문제가 구별돼서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학교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정치투쟁을 할 수 없다고 봤어요. 저희들은. 그래서 학내민주화 투쟁에 모든 전력을 다 기울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고(박○○ 구술증언).

6월항쟁 직전까지도 박철웅 총장 체제에 맞서 학원민주화투쟁을 펼쳐왔던 조선대 학생운동세력에게는 정치투쟁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학원민주화가 일차적 목표로 설정된 상태였다. 그 결과 1987년 전반기 학원민주화투쟁에 집중한 상황에서 조선대의 정치투쟁은 산발적으로 일부 활동가들이 전남대와의 연합투쟁에 참여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그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6월항쟁을 거치면서 대중투쟁을 조직화해내고, 그 과정에서 강화된 학생운동대오를 토대로 조선대 학생운동은 학원민주화투쟁에서 승리했다.

광주지역의 노동계 역시 노동현장의 실상을 노동자만의 특수한 현실로 국한하지 않고 전두환 정권의 폭압 정책의 일환으로 인식하거나, 그것과의 연계 속에서 규정하거나 의미화 했다. 또 4·13 호헌조치를 5·18의 연장선에서 해석하면서, 5월투쟁의 현재적 의미를 강조하는 담론을 생산했다. 1987년 6월 1일자 전남지역 노동자 권익쟁취위원회 기관지 『근로자』는 "누가 박군을 고문살해하였는가"라는 기사를 통해 박종철고문치사사건을 노동자에 대한 전두환정권의 폭압정책과 연결지어 노동자들의 투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 5월 18일 광주의거 추모미사에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은 박군 고문살해 진범이 따로 있으며 현정부의 하수인인 치안본부와 수사를 담당한 검찰이 그 은폐조작의 주동세력임을 밝혔다. (…) 박군사체를 목격한 박군 아버지의 증언에 의하면 박군은 온몸에 수십군데에 피멍과 상처가 있었다고 한다. 젊고 패기있는 대학생이 한두차례 물고문에 의해 질식사 한다면 저들이 수많은 근로자·청년학생·민주인사들에게 자행하는 상습적인 물고문 때마다 모두가 목숨을 잃어야 할 것이다. **근로자 살해사건과 권양 성고문사건 등의 진상은폐조작** 박군 고문살해사건 하나만이 문제가 아니다. 저들의 포악성은 이미 이 나라를 뒤덮고 있다. 저들은 인천동부가스 근로자 신호수군을 불법연행, 살해하여 인적없는 산에다 버리고, 부천경찰서 문귀동에 의해 자행된 야만적인 성고문을 은폐 날조하는데 광분해 있다. 어찌 이러한 범죄행위가 일선 경찰관이나 검찰 등의 도의적 책임으로 무마되며, 한통속인 사람들로 내각개편한다고 해결된 일인가. **근로형제 자매여러분! 이나라 국민들이 폭력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와지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현정부가 무조건 물러나는 길뿐이다**(근로

자 1987/06/01).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의 박종철고문치사사건에 대한 폭로 이후 노동계는 노동현장에서 계속 되어왔던 경찰의 노동자에 대한 살인, 불법 고문, 성폭력 등을 고발하면서, 박종철고문치사사건이 곧 자신들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또한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인간다운 삶의 실현이 전두환 정권의 퇴진 여부에 달렸음을 강조하는 것을 통해 4·13호헌조치 반대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것이 80년 5·18 광주 근로자의 투쟁과 5월 영령의 뜻을 받드는 길이라고 규정했다. 87년 5월 18일 광주민중의거 7주년을 맞이하여 발행된 『근로자』 호외의 내러티브(narrative)는 당시 노동운동계가 어떻게 노동자의 권익투쟁과 급부상한 정치적 이슈를 5·18 광주학살과 밀착시켜 의미화하고, 투쟁을 조직화하고자 했는가의 전형을 보여준다.

〈그림 3〉

[근로자] 호외 5월 18일 광주민중의거 7주년을 맞이하여

이나라 민주주의건설투쟁의 위대한 별!! 근로자만세!!!

광주노동자위원회 (522-5429)
한국기독노동자전남지역연맹 (54-733[illegible])

우리 근로자는 전두환 정권에 의해 자유롭게 말할 권리도, 단결할 권리도, 파업할 권리도 모두 빼앗겼읍니다. 생존권의 보장과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외침은 악덕기업주와 결탁한 전두환 정권의 경찰력과 폭력으로 탄압받고 있읍니다.

노동조합결성의 자유·파업의 자유 쟁취하자

장시간·저임금 강요하는 독재정권 몰아내자

전두환 정권은 오직 기업주만의 이익을 위해 노동조합 결성의 권리도, 임금인상을 위해 파업할 권리도 없애 버렸읍니다.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동결하고, 임금인상과 생존의 권리를 요구하는 근로자들을 폭력과 투옥으로 탄압했읍니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장시간 중노동과 저임금, 산업재해율등 전두환정권 하에서 근로자의 생존조건과 직업조건은 더욱 악화되었읍니다. 기업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근로자를 억누르는 전두환 정권을 몰아내지 않고는 기업주와 투쟁에 승리할 수 없으며 근로조건 개선과 가족의 생활향상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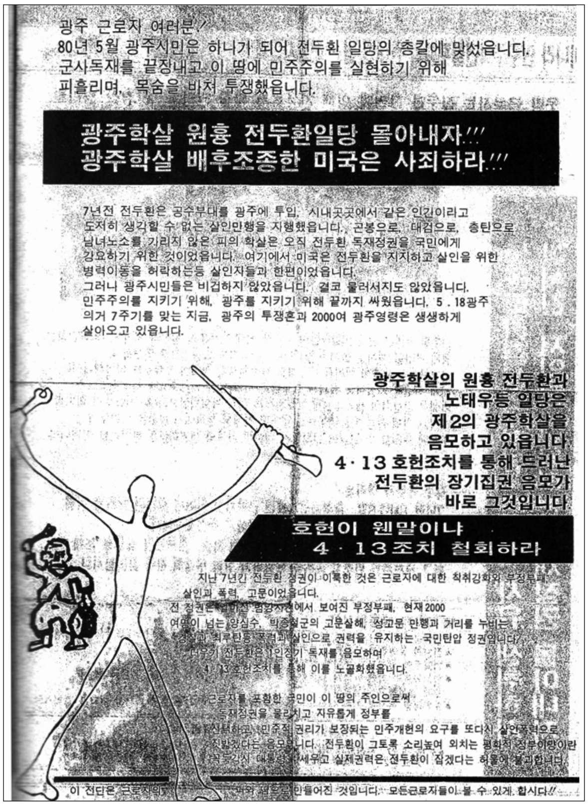
광주 근로자 여러분!
7년전 80년 5월, 광주근로자들은 근로자의 인간적 생존권 쟁취를 위해,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공장에서 거리에서 투쟁했읍니다.
전두환 정권의 장기독재 음모가 노골화된 지금, 전두환의 음모를 분쇄하고 근로자의 민주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참여합시다.

■ 이렇게 행동합시다
- 현장담벽에, 화장실에 5.18과 4.13호헌반대, 근로자의 요구를 나타내는 낙서를 합시다.
- 전단과 유인물을 동료들과 돌려보고 현장에 놓아둡시다.
- 기업주와 관리자의 부당한 처우에 항의합시다.
- 현장동료와 함께 5.18과 전두환의 음모에 대해 토론하고, 5.18을 기리는 행동을 함께 결정하고 실행합시다.
- 5월18일 10시를 기해 현장에서 묵념을 올립시다. 운전기사들은 일제히 경적을 울립시다.

★ 다음의 5.18행사에 참여합시다!!
- 5.16~5.27 / 사진전과 비디오상영 〈카톨릭센터〉
- 5.16 7시 / 도청앞 제1차궐기대회
- 5.17 오후 2시 / 도청앞 제2차궐기대회
- 5.18 오후 5시 / 도청앞 제3차궐기대회

〈출처: 『87 광주전남 6월항쟁(자료집)』 II〉

〈그림 4〉



광주 근로자 여러분!
80년 5월 광주시민은 하나가 되어 전두환 일당의 총칼에 맞섰읍니다.
군사독재를 끝장내고 이 땅에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피흘리며, 목숨을 바쳐 투쟁했읍니다.

광주학살 원흉 전두환일당 몰아내자!!!
광주학살 배후조종한 미국은 사죄하라!!!

7년전 전두환은 공수부대를 광주에 투입, 시내곳곳에서 같은 인간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살인만행을 자행했읍니다. 곤봉으로, 대검으로, 총탄으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은 피의 학살은 오직 전두환 독재정권을 국민에게 강요하기 위한 것이었읍니다. 여기에서 미국은 전두환을 지지하고 살인을 위한 병력이동을 허락하는등 살인자들과 한편이었읍니다.
그러나 광주시민들은 비겁하지 않았읍니다. 결코 물러서지도 않았읍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광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웠읍니다. 5.18광주의거 7주기를 맞는 지금, 광주의 투쟁혼과 2000여 광주영령은 생생하게 살아오고 있읍니다.

광주학살의 원흉 전두환과
노태우등 일당은
제2의 광주학살을
음모하고 있읍니다.
4·13 호헌조치를 통해 드러난
전두환의 장기집권 음모가
바로 그것입니다.

호헌이 웬말이냐
4·13조치 철회하라

지난 7년간 전두환 정권이 이룩한 것은 근로자에 대한 착취강화와 부정부패, 살인과 폭력, 고문이었읍니다.
전 정권[illegible]에서 보여진 부정부패, 현재 2000여명이 넘는 양심수, 박종철군의 고문살해, 성고문 만행과 거리를 누비는 [illegible] 최루탄등 폭력과 살인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국민탄압 정권입니다!
더욱기 전두환은 1인장기 독재를 음모하며 4·13 호헌조치를 통해 이를 노골화했읍니다.

근로자를 포함한 국민이 이 땅의 주인으로써 독재정권을 물리치고 자유롭게 정부를 선택하고, 민주적 권리가 보장되는 민주개헌의 요구를 또다시 살인폭력으로 짓밟겠다는 음모입니다. 전두환이 그토록 소리높여 외치는 평화적 정부이양이란 꼭두각시 대통령[illegible] 세우고 실제권력은 전두환이 잡겠다는 허울에 불과합니다.

이 전단은 근로자의 [illegible]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모든근로자들이 볼 수 있게 합시다!!

〈출처: 『87 광주전남 6월항쟁(자료집)』 II〉

먼저 호외의 전체적 슬로건 및 내용 배치의 구도가 보여주듯이, 호외의 내러티브는 전두환 정권 하에서 자행된 노동운동에 대한 폭압적 현실에서 출발해, 동일한 탄압에 맞서 피흘려 싸운 80년 5월 '광주근로자'를 소환한다. 뒤이어 5월 광주의 투쟁혼과 영령의 뜻을 이어받아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고 살인은 물론 온갖 폭력과 고문을 가하는 전두환 정권의 4·13호헌조치 철폐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무엇보다 "광주학살의 원흉 전두환과 노태우 등 일당은 제

2의 광주학살을 음모하고 있습니다. 4·13호헌조치를 통해 드러난 전두환의 장기집권 음모가 바로 그것입니다."라는 문구와 같이, "4·13호헌조치 = 제2의 광주학살 음모"라는 담론 전략은 학살의 경험을 신체에 각인한 광주 지역민이자 노동자들에게 공포와 분노의 감성을 극대화시키는데 효과적이었을 것이다.[5)]

장시간·저임금 강요하는 독재정권 몰아내자
노동조합결성의 자유·파업의 자유 쟁취하자

"우리 근로자는 전두환 정권에 의해 자유롭게 말할 권리도, 단결할 권리도, 파업할 권리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생존권의 보장과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외침은 악덕기업주와 결탁한 전두환 정권의 경찰력과 폭으로 탄압받고 있습니다."

↓

광주학살 원흉 전두환 일당 몰아내자!!!
광주학살 배후조종한 미국은 사죄하라!!!

"광주 근로자 여러분! 7년전 80년 5월 광주근로자들은 근로자의 인간적 생존권 쟁취를 위해,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공장에서 거리에서 투쟁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장기독재 음모가 노골화된 지금, 전두환의 음모를 분쇄하고 근로자의 민주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참여합시다."

↓

호헌이 웬말이냐 4·13조치 철회하라

"광주학살의 원흉 전두환과 노태우 등 일당은 제2의 광주학살을 음모하고 있습니다. 4·13호헌조치를 통해 드러난 전두환의 장기집권 음모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역 농민운동 역시 농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권익투쟁을 전두환 정권의 퇴진운동과 동일시했다.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소재 전남기독교농민회에서 발행한 1987년 5월호 『전남농민신문』은 5·18 7주기를 맞이한 농민들의 추모제 행사를 소개했다(전남농민신문 1987/05). 기사 내용 중 주

5) 1987년 당시 '4·13호헌조치를 제2의 광주학살'로 규정짓는 지역 유인물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모이자 도청 앞으로!!」; 「이나라 민주주의건설투쟁의 위대한 별!! 근로자 만세!!」 등.

목되는 것은 『전남농민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기치가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자는 농민들의 함성 - 영구집권 획책하는 4·13조치 철회하고 마늘 양파 생산비 보장하라!"이다. 그리고 이 굵은 글씨의 헤드라인(headline) 위에 "이장을 내손으로 대통령도 내손으로"라는 구호가 신문의 제일 상단에 배치되어 있다. 당시 관제화 되고 부정부패한 농협을 일소하고 농협의 조합원인 농민이 주인 되는 농협민주화운동을 추진했었던 지역 농민단체들은, 농민의 생존권과 일상에 직결된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떠오른 4·13호헌조치와 결합시켜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했다. 실제 기사는 다음과 같이 농촌의 상황을 5·18과 4·13호헌조치와의 관계 속에서 규정하는 가운데, 투쟁의 노선을 수립해가고 있다.

> 무안군 기독교농민회, 한국가톨릭농민회, 무안군협의회, 무안군 민주화 및 농민생존권 운동협의회 농민들은 광주민중항쟁 7주년을 맞아 추모제와 함께 농가부채해결 및 마늘 양파 생산비 보장을 위한 공청회를 5월 18일 11시 무안군청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추모제에 참석한 농민들은 이 땅의 민주화와 농민 노동자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장렬하게 산화한 광주민중항쟁의 희생자들의 뜻을 이어받아 영구집권 획책하는 4·13조치를 분쇄하고 직선제 개헌투쟁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또한 4·13조치의 본질이 개방경제의 확대에 있음을 폭로하고 매국적인 농축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군청 정문을 막아선 전경과 군청직원 농협직원을 몸으로 밀어붙이고 군청 앞마당으로 들어가 1시간 30분 동안 농성을 한 농민들은 "군사독재 물리치고 민주헌법 쟁취하자!", "장기집권 획책하는 4·13조치 철회하라!", "농가부채 해결하는 민주정부 수립하자!", "마늘 양파 생산비 보장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농가부채의 근본 원인에 대한 토론을 벌이면서 반민중적 독재정권에 대항하는 길은 농민들의 단결된 힘과 조직적인 투쟁뿐임을 명백히 했다. 이처럼 정정당당한 농민들의 기세에 눌려 무안군수는 어디론가 숨어 버렸고 농민들은 다시 한번 열기를 모아 프랭카드를 앞세우고 노래를 부르면서 가두행진을 했다. 무안에서 추모제 및 농민대회를 마친 농민들은 각기 분산되어 목포와 광주에 재집결하였고 여타 민주화운동 세력들과 5·18정신계승을 위한 400만 도민 민주화 대행진에 적극 참여하였다. "마늘 양파 생산비 보장하라!", "4·13조치 철회하고 직선제개헌 실시하라!", "광주학살 책임지고 군사독재 물러나라!"(전남농민신문 1987/05)

기사 내용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농민운동세력은 광주민중항쟁을 민주화는 물론 농민 노동자의 생존권보장을 위한 장렬한 희생으로 규정하고, 그 광주민중항쟁의 뜻을 거스르는 4·13호헌조치의 본질 역시 매국적 농축산물 수입을 획책하는 개방경제의 확대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농민운동세력은 5·18과 그 영령의 뜻에 이반되는 4·13호헌조치를 곧 농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의미화 했다. 이와 같이 농민운동세력은 전두환 정권의 영구집권 시도를 '민주화'라는 추상적 이념이나 정치적 이슈가 아닌 농민의 생존권과 삶에 직결되는 문제로 전환해서 반복적으로 선전했다. 때문에 4·13호헌조치를 철회시켜 직선제 개헌을 실시하는 것은 대통령을 내손으로 뽑는 것 이전에 마을 이장을 내손으로 뽑아 농민이 주인 되는 민주농촌을 건설하는 것을 의미했다. "농촌의 민주화가 나라 민주화의 초석이다", "조합장 직접 뽑아 정부간섭 막아내고 농민위에 군림하는 임직원을 몰아내며 권력에 봉사하는 관제농협 거부하여 농민이 주인 되는 민주농협 건설하자!", "민주농협

건설하여 내 땅에서 농사짓고 농산물 값 제값 받아 빚 없이도 살 수 있는 민주농촌 건설하자!" 등의 구호는(농민신문 1987/11), 당시 농민운동세력이 스스로의 운동을 어떻게 사회 전체의 민주화운동 속에서 결합시켜갔는가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고 광주의 6월항쟁이 지역의 5·18에 대한 정서와 각 부문운동의 특수한 환경 속에서 전국적 항쟁과는 달리 개별적이거나 폐쇄적으로 전개되었던 것은 아니다. 이미 광주는 80년 5월 이후 광주학살의 진상이 일부 알려지면서 민주주의의 성지로 전국적 주목을 받으며, 매년 5월 수많은 타 지역 대학생과 사회 활동가들이 망월동을 참배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대의 고리들이 형성되었다. 87년 6월항쟁 무렵에는 전사협과 같은 전선운동체는 물론 종교계, 노동자, 농민 등 각 부문운동세력 역시 전국단위 운동과 연관관계를 통해 서울 및 타 지역의 투쟁 상황을 공유하면서 통일된 구호 및 동시다발적 투쟁을 만들어갔다. 80년 5월과 달리 광주만의 고립된 국지적 투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광주지역 대학생들은 서울 및 타지의 시위전술을 학습해 투쟁현장에서 활용하기도 했다. 당시의 상황을 조○○은 다음과 같이 말해준다.

> 우리가 지금까지 싸움을 한 것을 반성을 했죠. 최루탄을 쏘고 가서 화염병 던지고 이렇게 하니까, 서울이나 이쪽 전체 흐름을 보니까, 이것이 근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안되고, 대중들이 결속이 안된다. 그러면 우리가 끌려갈 각오를 하고 연좌연와시위를 하자. 비폭력 연좌연와시위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 아, 그랬는데 16일 날 가서 해보니까, 그때 우우 4, 5천명이면 이렇게 4, 5천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경찰이 풀어줄 정도가 됐으니까. 아 이것 괜찮다. 우리가 좌우간 시민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같이 이런 식으로 가야된다. (…) 첫날 우체국 사거리 그랜드호텔 앞에, 그때도 17, 8명 좌우간 연행이 됐죠. 그 다음날 대부분 풀려나왔는데, 그러면서 시민들이 달라든거죠. 그니까 처음에 할 때 보면은 옆에 시민인지, 사복경찰인지 몰라요. 근께 누워있자마자 잡혀가는거죠. 같이 서 있다가 누울라하면 잡아가고, 전부 이렇게 막. 완전히 그러면서 못 잡아가게 하고, 이런 것이 계속 진행됐죠. 그래서 끌려가고, 그러면서 서서히 시민들이 달라붙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조○○ 구술증언).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1987년 광주의 6월항쟁에서 '6·10'이라는 날짜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광주의 6월항쟁은 서울(중앙)이나 타 지역의 그것과는 같으면서도 다른 나름의 역사적 경험과 기억, 그리고 그것이 낳은 아비투스(habitus)와 감정의 구조(structure of feelings)를 내재하고 있었다. 그 결과 타 지역과 연대하면서도 독특한 투쟁의 계기와 리듬 속에서 항쟁을 만들어갔다. 그렇다고 광주라는 지역 역시 균질하고 단일한 운동대오를 형성한 것 역시 아니었다. 지역 내부에 각기 다른 부문운동은 자신들이 처한 주객관적 조건 속에서 독자적인 정세판단 및 투쟁방침을 정리했다. 이 서로 다른 계기와 운동의 결들이 박종철고문치사사건, 4·13호헌조치, 5·18투쟁을 계기로 접속하고 연대하면서, 동시에 서울 및 타 지역의 운동과 상호작용하면서 전민항쟁의 역사로 나아갔던 것이다.

IV.
6월항쟁 이후 광주의 기억

IV. 6월항쟁 이후 광주의 기억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6월항쟁 3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한 지역 모임에서는 광주·전남지역 6월항쟁사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광주광역시·전라남도가 공동 발행한 책자의 내용 때문이었다(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광주전남지역사회운동간행위원회, 2016). '6·10대회'를 기준으로 서울의 시위 양상에 비교해 광주·전남지역 6월항쟁을 평가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또한 6월 19일 이후 광주·전남지역의 시위가 뒤늦게 가열된 원인을 지역 경찰력의 진압능력의 탁월함이나 지역 학생운동세력의 준비부족 등을 거론하며, 광주지역의 6월항쟁을 6월 9일 이한열(광주 진흥고 동문)의 죽음과 타 지역 시위의 격화에 자극을 받은 피동적 대응으로 서술한 것이 답답함과 분노를 낳았다.

이와 같은 광주지역 6월항쟁사에 대해 87년 당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사무국장 고○○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 일부 논란이 되었던 전남대 6월투쟁사에 대한 왜곡은 6·10대회당일 투쟁을 중심으로 광주지역의 투쟁이 서울 등 타 지역에 비해 미약했던 것을 근거로 그 책임을 전남대 학생운동에서 기인한 것처럼 평가한 것은 당시 상황에 대한 이해부족의 소치라고 생각한다. 이는 6월항쟁 전 과정을 전국적인 시각에서 이해할 수 없었던 외곽의 인사들이 6·10대회가 절정이었던 서울 지역 중심의 평가를 베껴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 실제로 6·10대회 이후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서 계엄령으로 한국의 정치상황이 악화될 경우 88올림픽 참가를 거부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었고, 계엄령을 우려하는 미국의 메시지 등이 나오는 등의 정황을 보더라도 군사정권의 계엄령 카드는 6월 20일 전후까지 선택할 수 있는 카드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 광주, 부산을 비롯한 전국적인 투쟁이 들불처럼 번지지 않았다면 80년의 상황이 재연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게 본인 생각입니다(고○○ 구술증언).

1987년 당시 6월항쟁에 직접 참여했던 당사자의 입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6월항쟁사가 많은 편향과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과거의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6·10대회'를 기준으로 서울(중앙) 중심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왜 6월항쟁 기간 수많은 투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10대회'에 기억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것이며, 그것과의 대차대조를 통해 지역의 6월항쟁이 평가되어야 하는가를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사고 틀은 지역이 갖는 독특한 항쟁의 계기와 맥락에 관심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역의 특이성이 불순물처럼 취급되기 쉽다. 서울(중앙)의 경험과 기억을 중심으로 6월항쟁을 바라보는 이러한 시각은 한국민주화운동사에 한 획을 그은, 일종의 '신화화된' 6월항쟁을 전유하려는 현실정치의 욕망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서울(중앙) 중심주의 시각을 비판하는 광주지역의 6월항쟁에 대한 기억은 어떨까. 30년이 지난 현재 광주지역 역시 6월항쟁의 '신화'를 전유하려는 지역 내 현실정치의 욕망이 작동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5·18을 통해 한국을 넘어 전세계적 민주주의 도시로 이름을 떨친 광주라는 지역 정체성의 특성상, '민주주의'라는 간판은 현실정치의 유력한 자원이다. 다만 서울(중앙)과 다른 점은 이중의 경쟁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쪽으로는 서울(중앙)의 헤게모니에 맞서야 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5·18로 대표되는 지역 내 또 다른 민주화운동세력과도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촛불혁명'을 자신의 뿌리로 삼고 민주정권을 표방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6월항쟁을 둘러싼 기억의 정치는 한층 가열되고 있다.

한 예로, 광주라는 지역의 특성상 6월항쟁은 민주주의운동이라는 측면에서는 5·18과 동일한 선상에 위치했지만, 그것이 지역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의미는 5·18과의 의미경쟁 속에서 늘 주변화 되거나 소외된 측면이 존재했다. 최루탄부상자협회장 구○○의 증언에 따르면, 과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6월항쟁 부상자들 명예회복운동을 추진했을 때 전국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이란 단체가 결성되었는데, 타 지역과 달리 광주에서는 '광주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이란 명칭을 쓸 수 없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 명칭을 쓰는 순간 "5·18을 생각해버리니까."라고 증언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광주 지역의 6월항쟁에 대한 시선은, 그 이면에 지역에서의 민주주의라는 기표를 둘러싼 헤게모니 경쟁의 한 측면을 드러내준다. 5·18과 6월항쟁이 공존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그것들의 현재적 가치와 의미에 대한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증언자는 바로 5·18에 의해 상대적으로 주변화 된 6월항쟁 부상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 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 해가지고, 광주를 뒤로 넣었는데, 5·18을 겪으면서 5·18부상자들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처참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의 부상에 비하면 경찰 폭력의 부상자들은 경미한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더 심한 사람들도 많죠. (…)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자기의 머리를 맞으면 죽을 수도 있고, 눈에 맞으면 실명될 수도 있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한 사람의 죽음으로서 끝난 게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것들도 남고 그러니까. 최소한 5·18만큼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국가 권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돌아보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좀 돌아보는 계기가 필요하지 않는가(구○○ 구술증언).

보다 문제적인 것은 서울(중앙)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이든 지역 내 경쟁관계 속에서의 비판이든 6월항쟁에 대한 기억은 '민주주의'라는 신화 속에 일정하게 틀 지워져 있다. 학생, 청년, 노동자, 농민, 종교, 여성 등 다양한 주체들이 6월항쟁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생존권과 삶에 대한 투쟁의 내용은 언제부터인가 6월항쟁사에서 주변화되었다. 각자의 삶의 터전과 영역에서 분출했던 서로 다른 사회변화의 계기와 지향은 사라진 채, 그 다채로운 열망을 담아냈던 '민주주의'라는 기표만이 남게 되었다. 오늘날 6월항쟁사를 둘러싼 논쟁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박제화 된 '민주주의'라는 간판의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한 기억의 정치가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간판을 독점할 것이 아니라, 그 간판이 담아냈던 사회변화의 동력을 불러일으켜내고, 다채롭게 분출되었던 기층 '민중운동'의 실천적 요구가 얼마나 실현되었는가를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모색해야 함에도, 항쟁의 신화와 민주주의라는 껍데기만 있을 뿐 6월항쟁의 정신과 내용은 잊혀져가고 있는 듯하다.

V.
나오며:
로컬에서 바라본 6월항쟁

V. 나오며: 로컬에서 바라본 6월항쟁

과거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의 신화 속에서 로컬은 늘 국가와 민족의 이름으로 동질화의 대상으로 타자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과정에서 지배권력의 포섭과 배제의 이중적 지배정책이 작용하는 영역이었다. 최근 글로벌화, 다문화, 혼종성의 경향이 낳은 사회구조의 다원화 추세는 국민국가의 경계를 횡단하는 사상과 운동의 일환으로서 글로컬, 트랜스로컬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로컬은 기존 민족과 국가의 위계적 하부로 배치된 것을 탈피해 하나의 동등한 권리와 목소리를 갖는 영역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현재의 로컬이 과연 국민국가의 지배와 영향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전혀 그러하지 않다. 여전히 로컬은 국민국가라는 체제 속에서 위치하면서 그것에 긴박되어 존재한다. 동시에 신자유주의와 디지털 네트워크와 같은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경을 가로질러 세계와 직접적으로 접속하고 있기도 하다. 다시 말해 국민국가라는 문턱을 지닌 채 보다 확장된 세계와 연결되면서, 과거와는 다른 독특한 풍경과 정체성을 구축해가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변화된 시대에 6월항쟁은 어떻게 기억되고 상상되고 있을까? 기존 6월항쟁사는 변화된 시대에 발맞추어왔다기보다는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 중앙(서울) 중심주의의 시각과 논리가 강고하게 존재한 채 로컬의 다양한 항쟁의 계기와 동학을 바라볼 수 없게 했다. 동시에 지역정치의 차원에서도 6월항쟁사는 지역 내부의 다양한 차이의 결을 드러내기보다는, 지역 내 또 다른 중앙-지방의 위계구조를 구축하고 지역 6월항쟁의 다채로운 경험과 기억을 억압하고 있다.

실제 6월항쟁은 서로 다른 운동의 계기와 실천이 그 차이성을 견지한 채로 접속하고 연대하여 하나의 거대한 물줄기로 나아갔던 것이 아닐까. 그와 같은 다양성과 다름을 내재한 6월항쟁사의 구축은 불가능한 것인가. 다중(multitude)의 시대 한국사회는 서로 다른 갈래와 물줄기를 간직한 로컬들의 항쟁이 민주주의라는 큰 바다로 수렴될 수 있는 새로운 6월항쟁사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민중의 시대에서 다중의 시대로 전환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6월항쟁을 어떻게 바라볼 것

인가. 6월항쟁이 성취한 민주주의라는 큰 바다만을 강조한 채, 그 바다를 이루기 위해 또 그 바다를 향해 나아갔던 무수한 갈래의 강줄기와 시냇물을 망각할 것인가. 서로 다른 원천과 경로, 속도와 리듬을 가졌던 이질적 물결들이 어느 순간 접속해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공감장(共感場)를 형성했던 순간이 바로 6월항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민중'이라는 단일한 상상된 공동체가 결국 국민이라는 정치적 주체로 수렴된 채 그 내부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경험과 기억을 압살하고 은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6월항쟁사는 '민주주의'를 신화화 할뿐 그것을 통해 표출하고자 했던 다양한 민중운동 그 자체에는 소홀하고 있다. 즉 현재의 6월항쟁사는 '직선제 개헌'으로 포획되거나 수렴될 수 없는 노동자, 농민, 청년, 여성, 부랑자, 소수자 등이 열망했던 다채로운 민주주의의 양상과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촛불광장의 잡색부대가 보여주었던 것과 같이 6월항쟁은 한국사회가 여전히 추구해야 할 많은 소중한 가치와 역량을 함축했던 순간이었다. 향후 로컬에서의 6월항쟁 연구를 통해 망각된 민중운동의 경험과 기억이 발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자료〉

- “5월은 4·13호헌조치 분쇄를 통해 부활한다”(광주의 소리 1987/05/25)
- “누가 박군을 고문살해하였는가”(근로자 1987/06/01)
-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자는 농민들의 함성”(전남농민신문 1987/05)
- “모이자 도청 앞으로!!”(미상 1987)
- “민주헌법쟁취 전남농민선언”(1987/07/29)
- “서광택시 4일간의 처절한 단식농성”(진실 1987/04/01)
- “애국청년의 힘으로 헌법과 정부를!”(광주의 소리 1987/05/23)
- “이나라 민주주의건설투쟁의 위대한 별!! 근로자 만세!!”(미상 1987)
- “조합원총회 소집하여 농민의사 관철하자!!”(농민신문 1987/11)
- “한국노총은 어용노총”(진실 1987/05/23)

- 6월민주항쟁30년사업추진위원회, 2017, 『6월항쟁 서른 즈음에』, 은빛.
- 80년대 전반기 학생운동 기념문집 출간위원회, 2006, 『5월 광주를 넘어 6월항쟁까지 :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자인.
-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2017, 『6·10민주항쟁 전남지역 구술사업 결과보고서』.
- 광주전남지역사회운동 간행위원회, 2016, 『민주장정 100년, 광주·전남지역사회운동사』, 광주광역시·전라남도.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7, 『6·10민주항쟁30주년 구술사업 결과보고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2007, 『6월 항쟁을 기록하다 : 한국민주화대장정』 1~5.
- 부산지역유월항쟁자료발간위원회 편, 1995, 『6월항쟁: 자료모음집』, 유월자료.
- 사)광주·전남 6·10항쟁기념사업회, 2018, 『87광주전남 6월항쟁』 Ⅰ·Ⅱ.
- 사)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전남대6월항쟁동지회, 2018, 『아! 다시 부르는 청춘의 노래』.

〈단행본〉

- 강신복, 2010, 『6·10 민주항쟁 통일의 그날까지 : ’8~90년대 민주화운동 유인물집』, 디자인 피알아이.
- 김 원, 2009, 『87년 6월 항쟁』, 책세상.
- 김영수, 2008, 『과거사 청산, ‘민주화’를 넘어 ‘사회화’로』, 메이데이.
- 김정남, 2007, 『우리는 결코 너를 빼앗길 수 없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김주한, 2005, 『6월 민주항쟁과 기독교』, 한국신학연구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0, 『한국민주화운동사』 3, 돌베개.
- 박찬표, 2010, 『한국의 48년체제』, 후마니타스.
- 박현채, 1987, 『轉換 : 6월 투쟁과 민주화의 진로』, 사계절.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엮음, 2017, 『6월 민주항쟁: 전개와 의의』, 한울아카데미.
- 서중석, 2011, 『6월 항쟁: 1987년 민중운동의 장엄한 파노라마』, 돌베개.
- 이남희, 2015, 『민중만들기: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재현의 정치학』, 후마니타스.
- 이윤섭, 2017, 『6월 항쟁과 87년 체제의 성립』, 필맥.
- 정해구·김혜진·정상호, 2004, 『6월 항쟁과 한국의 민주주의』, 오름.
- 조지 카치아피카스, 2015, 『한국의 민중봉기』, 원영수 옮김, 오월의 봄.
-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87, 『6월 민주화대투쟁』, 민중사.

참고문헌

〈논문〉

- 김용규, 2008, “로컬리티의 문화정치학과 비판적 로컬리티 연구”, 『한국민족문화』 32, 1-39.
- 박세종, 2017, “민족전대 6월 민주항쟁사”,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6월항쟁 30주년과 전남대 학생운동』(학술심포지엄 자료집), 8.
- 이광일, 2000, “민주화이행과 80년대 ‘사회운동’의 재평가, 그리고 현재”, 『정치비평』 7, 108-124.
- 이영제, 2016, “민주화 30년, 6월민주항쟁과 촛불집회의 의미와 과제”, 『KDF리포트』 9, 1-16.
- 장희권·류지석·이상봉, 2009, “지역학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문화연구와 사회과학적 시각에서 고찰함”, 『독일어문학』 46, 405-433.
- 조현연, 1997, “6월민주항쟁의 이념·주체·전략”, 『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10년』(6월민주항쟁 10주년 기념 학술대토론회 자료집), 당대, 145-182.
- 조희연, 2002, “87년 6월 민주항쟁과 시민운동”, 『기억과 전망』 1, 85-99.
- 최평지, 2012, “87년 6월항쟁의 성과와 한계”,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준) 편, 『광주·전남 6월항쟁기념사업회 창립 및 6월항쟁 25주년 기념 1차 토론회』(자료집), 24-25.
- 최현·김지영, 2007, “구조, 의미틀과 정치적 기회: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운동”, 『경제와 사회』 가을호, 251-281.
- 황인성, 1997, “투쟁의 구심,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역사비평』 37, 20-63.

구술자료

- 고○○(87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총무부장)
- 구○○(87년 광주전남최루탄부상자회 회장)
- 김○○(87년 국본 전남본부 재정부장)
- 박○○(87년 조선대학교 학생운동 투쟁 책임자)
- 조○○(87년 전남대학교 학생운동 조직 책임자)
- 최○○(87년 국본 전남본부 사무차장)

부록

1. 1987년 1월부터 6월항쟁 기간까지 전남대학교 투쟁 일지
2. 87년 6월항쟁 참여상황그래프(서울, 부산, 광주)

1. 1987년 1월부터 6월항쟁 기간까지 전남대학교 투쟁 일지((사)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전남대6월항쟁동지회, 2018, 45-62)

일시	투쟁
1월 26일(월)	• '고 박종철학우 추모제 및 애국세력탄압 폭로 대회' 개최 • 5·18광장에서 학생 500여명이 참석. 1시간 동안 정후문에서 침묵시위를 전개한 후 본부에서 해산. 김승남(87년 총학생회장)은 '인권탄압하는 군사독재 뿌리 뽑자'라고 주장
2월 5일(목)	• 오후 2시 10분경 충장로 5가 입구에서 시위. "살인고문 자행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 "장기집권 음모 내각제 분쇄하자", "5·18보상하라, 박종철을 살려내라" 구호 외침. 오후 4시 40분경 대인동 공용터미널 앞에서 시위함
2월 7일(토)	박종철 열사 추모제 • 오후 2시 10분 충장로 5가 입구에서 가두시위 • 오후 4시 40분 대인동 공용터미널 가두시위 • 이날 시위도중 박웅두(농학1) 구속. 정찬호(영문2), 김성호(국문3), 강성휘(정외2)는 3일 구류
2월 19일(목)	• '2·7추도회 보고대회 및 박종철 49제 준비위원회 발족식' • 학생 500여명 참여. 이용빈(의학과1)군이 준비위원회위원장을 맡음
3월 1일(일)	• 오후 3시 30분경 중흥동 광주고속터미널 앞에서 시위. 김창수, 이광일, 이창권 등이 주도하여 대학생 150여명과 함께 '장기집권 음모 내각제 분쇄하자, 군부독재 타도하자' 외치며 유인물을 뿌리고 시위. 같은 시간 문현승, 김현옥 주도로 양동시장에서 학생 70여명과 함께 시위. 오후 5시 30분 풍향동 서방시장사거리에서 문현승, 이광일 주도로 100여명 시위. 같은 시간에 학동시장에서는 이창권, 김창수, 임동성 주도로 150여명이 시위
3월 3일(화)	'박종철 역사 49제' • 오전 8시 30분경 광주 북구 신안동 신역 앞에서 이창권, 김현옥, 김창수 주도로 200여명이 시위. '박종철을 살려내라' 구호와 함께 '100만 애국시민에게 드리는 글' 등의 유인물을 살포하고 전남대 사거리로 진출하면서 신안동 태봉파출소를 습격 • 오후 1시경 '고 박종철 학우 49제 및 용봉학우 평화대행진'을 교내 5·18광장에서 8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 오후 8시 30분경 충장로 조흥은행 앞에서 학생 150명이 '살인 만행 자행하는 군사정권 타도하자'를 외치며 시위. 이 과정에서 임동성(상대84)군이 연행 구속
3월 10일(화)	총학생회 및 총여학생회 출범
3월 17일(화)	'구학투' 출정식 • 전남대는 전국 최초로 '반외세 반독재 구국학생 투쟁위원회(구학투)'를 발족. 투쟁위원장에는 문현승(사대83), 산하기구로 '장기집권 음모 내각제 분쇄 투쟁위원회'(이창권, 상대84), '민중생계 지원쟁취 투쟁위원회'(김창수, 인문대84), '미국 내정간섭 반대 투쟁위원회'(김현옥, 사범대84)를 구성 • 학생 800여명의 참여 속에 1부는 표정두열사 추모제, 2부는 구학투 출정식이 진행.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를 외치며 시위. 이후 정문으로 이동하여 저지하는 경찰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임. 이날 기관지 '구국의 길 1호'를 배포하였고 이후 3호까지 배포
3월 30일(월)	• '3·30 1주년 시국대토론회'를 교내 대강당에서 3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

일시	투쟁
4월 13일(월)	'전두환 4·13호헌조치 발표' • 구학투와 총학생회는 오후 3시 30분 5·18광장에서 '장기집권음모 호헌 분쇄를 위한 학생총회'를 개최하고 호헌분쇄투쟁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인 후 교내 전역을 도는 평화행진 진행. 이후 100여명이 농성 돌입
4월 14일(화)	• 총학생회와 '구학투'는 〈제2차 비상학생총회〉를 개최하고 오후 1시~2시 30분까지 중앙도서관 앞에서 학생 1,000여명이 참가하여 "호헌 결사저지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정문 쪽에서 시위 • 시위 후 김승남(총학생회장)군을 비롯한 20여명이 단식농성에 돌입 • 각 단과대학은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수업거부 및 중간고사거부를 결의
4월 15일(수)	• 오후 3시 중앙도서관 앞에서 학생 1,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구학투'는 '4·19혁명정신계승제 및 단식투쟁 지지대회'를 개최하고 단식농성을 지지하며 대학본부 철야농성 전개 • 구학투 명의로 「대동함성」 1호 배포
4월 16일(목)	• 4월 16일 철야농성 이후 본부 옥상에 올라가 '장기집권 호헌론 결사반대', '학원민주화쟁취' 구호를 외치며 투쟁. 각 단대, 학과별 비상총회를 거치며 투쟁을 재결의. '4·19혁명을 통해 본 학생운동의 역할'을 주제로 학술세미나 개최 • 경영대 노천극장에서 '4·19혁명 27주년! 반외세 반독재 대동단결마당' 행사 진행. • 「대동함성」 2호 발행
4월 17일(금)	• 오후 3시 30분~7시까지 전대 정문에서 학생 2,000여명 시위하며 「대동함성」 3호를 배포
4월 24일(금)	• 5·18광장에서 '전방입소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 대상자인 86학번 중심으로 전방군사훈련의 문제점 지적하고 식민지 용병군대의 강제적인 군사교육철폐를 주장
4월 27일(월)	• 전방 입소한 학생들이 전방부대에 도착하여 故 이재호·김세진열사 추모식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37명이 자진 퇴소. 퇴소학생들이 귀교하는 도중 전원 서부경찰서로 연행됨
4월 28일(화)	학생 500여명 참가하여 전방입소거부 퇴소 연행자 37명 석방투쟁 전개
4월 29일(수)	• 오전 10시 30분경 연행된 37명 중 31명은 석방되어 귀교 • 오후 1시경 '구학투'는 연행학우 전원석방을 요구하며 시위. 학생 100여명 참가하여 「대동함성」 4호 배포
5월 1일(금)	• 전방입소 거부 연행자 중 나머지 학우 석방되고 총장실 점거농성 학생 70명 단식농성해제. 이 투쟁 과정에서 사진체증으로 류영욱(물리 4)군과 서대운(사회 3)군 집에서 연행 후 구속
5월 4일(월)	• 전남대 교수 60명 시국선언 등 성명 발표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 ①국민적 합의에 의한 개헌 ②국민적 요구에 귀 기울이고 ③양심수 석방 국민적 합의 기반 조성 ④학생들은 폭력 자제 요구)
5월 6일(수)	• 전남대, 조선대 1백 50여명이 '학생처 처단'투쟁 중 본관 점거. 교수 13명 각목 부상, 승용차 5대 불탐. 양 대학 학생 12명 구속 • 전남대생은 4명 구속: 김광윤(경영대 3), 백현철(사회대 86), 하영래(인문대 86), 허영하(인문대 86)

일시	투쟁
5월 7일(목)	• 5월 투쟁선언식(5월투쟁위원회 발대식 위원장 최완욱) 후 1천여명 시위. 87년 처음으로 전경들 학내 진입하여 학생들 중앙도서관 점거하고 밤늦게까지 시위. 경찰들은 1학생회관에서 오월제 프랑카드 등 제거하고 최형조(국어교육학과 3) 등 23명 연행 • 학생들은 8일 경찰들의 학내진압과 연행학생석방문제를 각 학과와 단과별로 비상총회를 열어 협의하기로 하고 해산 • 이날 '오투위'는 「신투사회보」 창간호 1,000부와 「5월투쟁선언문」 500부 배포
5월 8일(금)	• 전남대 500여명이 중앙도서관 앞에서 '경찰 학원진입 응징을 위한 비상총회'를 갖고 정문에서 시위. 이날 정문투쟁 시 학생들은 특이하게 거울로 경찰의 시야를 가리는 시위를 펼침
5월 9일(토)	• 전남대생 300명 오후 1시 30분경 학동 학강 다리와 서방시장 앞에서 시위. 이날 시위에서 학생들은 '호헌론 철폐하라', '군부독재 타도하자'를 외치며 시위 • 이날 시위로 문대열(전자공학과 2), 김현정(영문과 1 휴학) 등 2명 구속
5월 11일(월)	'오월제 시작' • 전남대 오월제 전야제와 '허남학생연합건설 준비위원회'(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우석대, 원광대, 목포대, 순천대, 군산대 학생 8백여명이 전남대에 집결) 결성식을 하고, 도서관 앞 잔디밭에 5·18추모비 제막식 진행. 이후 '호헌반대, 군부독재타도' 구호를 외치며 피켓을 들고 교내 행진 실시 • 이날 경찰들이 다시 학내 진입하여 시위 진압 • 전남대 오월제는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개최
5월 12일(화)	• 전남대 9백여명 '범도민 시국대토론회' 후 5백여명 화염병 교내 시위. 5월제 이틀째 맞아 5·18청년동지회 회장 이세영씨와 이재호 열사 어머니 전계순씨 등의 얘기를 듣고, 대강당에서 5·18시극을 1,500여명 학생들과 함께 관람. 이후 정문과 후문으로 이동하여 시위 전개 • 자연대 수학과 사대교육학과 학생들 각 100여명은 실험 실습비 공개 등을 요구하며 학교 측에 항의 시위 전개
5월 13일(수)	• 전남대생 대강당에서 1700여명 5·18비디오 상영 후 체육관으로 이동해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당극 구경하고 1,000여명은 후문에서 격렬하게 시위. 학생들은 공대 5호관, 약대 등으로 분산하여 200여명은 거리로 진출하여 격렬하게 시위. 「신투사회보」와 「5월투쟁소식지」 500매 배포 • 이 과정에서 5명이 연행되어, 최성일(화공학과 2), 임종학(무역하과 3)은 구속되고 김우형(고분자학과 3)은 즉심에 넘겨짐 • 이날 전남도경은 저녁 9시 30분부터 14일 새벽 2시까지 4시간 반 동안 전남대, 조선대, 목포대, 순천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 경찰은 전남대와 목포대에서 빈병 60개, 각목 93개, 깃발 42개 25종 2백 60여점을 압수
5월 14일(목)	'오월제 마지막 날' • 전남대 1,200여명은 20개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하는 '5·18정신계승을 위한 400만 도민 민주화 대행진 실천대회'를 개최하고 정문과 후문 그리고 공대 쪽으로 분산 학내와 거리에서 격렬한 시위 전개 • 이 과정에서 공대 서영선(화공과 1)이 머리에 최루탄을 맞아 중상을 입고 전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음 • 이날 오전에는 후문에서 사복경찰 2명이 정보사찰 중 학생들에게 한 명이 붙잡혀 중앙도서관 1층 1105호실에 숨겨지고, 이를 구출하기 위한 경찰들의 학내 진입으로 학교가 난장판이 됨 • 오후 5시 30분경에는 전남대 학동캠퍼스에서 전남대 의대, 치대 1백 50여명이 5월제 선포식과 전야제를 개최

일시	투쟁
5월 15일(금)	• 오후 1시 5·18광장에서 8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5월학살원흉처단을 위한 가투결사 투쟁대회'를 개최하고 가투선언 후 학내시위 전개. 전남대생 1백 20여명은 북구청 앞 기습 가두시위 후 중흥2동 파출소에 화염병 투척. 이날 시위에서 「신투사회보」 1,000매 배포 • 이 과정에서 파출소 기물이 파손되고 무전기를 탈취 당한 경찰들은 무전기를 찾기 위해 학내로 진입하였으나 못 찾고 밤늦게 철수. 학생 26명이 연행됨. • 경찰은 8일 동안 전국경찰 갑호비상령 발동하고 전국 학교 주변 검문검색 강화 및 집단사태 원천봉쇄를 지시. 이에 앞서 경찰은 13일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시국관련 수배자 검거를 위해 경찰 4만 여명을 동원해서 일제 검문검색을 실시
5월 16일(토)	• 오후 7시 1차 범도민 궐기대회(20개 단체 주최). 광주 대인동 대한극장 앞에서 학생 100여명과 함께 횃불 7개를 들고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금남로 쪽으로 진출 시도하며 화염병과 철근 토막 등을 투척하며 시위 • 이날 시위로 임상봉(사회대 2) 구속, 남상혁(공대 2) 즉심처분
5월 17일(일)	• 오후 2시 2차 범도민 궐기대회 개회. 시위로 임동파출소와 누문동파출소 등 2곳 파출소와 경찰 순찰차 1대 파손. 경찰 5명 다치고, 학생 26명 연행. 행상장인 YMCA, 카톨릭센타 완전봉쇄 • 망월동에서 광주항쟁 7주기 추모식 진행. 시민 1천여명 참석. 이 과정에서 시위대에 의해 시청 차 1대 전소, 경찰차 2대 파손, 2명 구속. 추모식 후 가두시위 전개 • 전남대 2천여 명 7주기 계승제 후 1천여 명 교내 시위. 학동에 있는 의, 치대에서도 200여 명 교내 시위 • 시위과정에서 류덕력(문헌정보학과 3) 구속, 이금순(불문과 3), 정은경(독문과 3), 문상배(철학과 3), 심재윤(의예 3) 이상 4명은 즉심처리. 최경희(철학과 3년 제적) 등 18명은 훈방 처리
5월 18일(월)	• 전남대 2,000여 명은 5·18항쟁 7주년을 맞아 5·18광장에 모여 '광주민중항쟁 7주기 계승제'를 갖고, 호헌철폐를 주장하며 대형 태극기를 들고 정, 후문에서 격렬하게 투석전을 전개 • 이 과정에서 조지수(독문과)군이 최루탄에 맞아 부상 • 의, 치대 학생 200여 명도도 의, 치대 계단에 분향소 설치하고 교내 시위 전개 • 이날 교내 시위를 마치고 가두시위를 위해 교내를 나가던 '구학투'와 '오투위' 성원인 최완욱, 김현옥, 나민주, 이창권, 김창수가 연행
5월 19일(화)	• 전남대 3백여 명 '5·18투쟁 결과보고 및 연행학생 석방을 위한 학생 총회' 후 석방요구 농성 돌입. 21일 민주기사의 날과 22일 반미의 날 더욱 가열 찬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 • 농대 학생 200여 명 농대 활성화를 위한 4호관 건립과 학회실 설치를 요구하며 농대와 본부 앞에서 농성 • 20여 명의 학생들이 교수연구실에서 인문대 일문과 무능교수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 시작
5월 20일(수)	• 전남대 100여 명 대인동 파출소에 화염병 투척 시위 • 오후 9시 30분 전남대 학생 40여 명은 해태 대 청룡 전 야구가 열리는 무등야구장 앞에서 횃불 10여기를 들고 시위 및 유인물 배포 • 농대 학생 130여 명 학내문제로 농성

일시	투쟁
5월 22일(금)	• 오전 8시 25분경 전남대 150여 명 월산동 민정당사에 화염병 투척 후 대성 초등학교 방향으로 가두시위 전개. 횡단보도에 붉은색 페인트로 '5·18피해 보상하라'고 쓰며 가두시위 전개 • 오후 1시 20분경 학내에서 전남대생 2백여 명 '민족자주권쟁취를 위한 반미의 날' 행사 후 화염병 시위 • 이 시위 과정에서 한승철(농생물학과 3), 안근식(공대 2), 강성엽(농대 3), 최강석(인문대 2), 지명준(의학 1), 정종현(농경 4), 김설오(사대 3), 나백주(의예 2), 김향선(인문대 3) 등 15명이 연행되어 즉심처리
5월 24일(일)	• 광주기독교 자유수호위원회(광주 개신교 14개 교단) 주최 노상(YMCA 앞 도로)에서 나라를 위한 연합 예배(기도회)에 시민학생 3만여 명(신문은 5천여 명) 참가 - 경찰은 행사장을 봉쇄하고 최루탄을 터뜨렸으나 물러서지 않고 여성 신도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함으로서 봉쇄 해제시킴(한빛 교회 윤기석 목사 사회, 중앙교회 변한규 목사 설교, 동명교회 최기채 목사 기도) • 대학생 3백여 명 행사장 인근에서 시위 - 경찰이 최루탄 발사하며 해산시킴
5월 25일(월)	• 일문과 학생 20여 명 교수퇴진을 요구하며 학장실점거농성 7일째 진행. 이 농성으로 일문과는 교양과목 수업만 진행하고 전공과목 수업은 진행하지 못함
5월 26일(화)	• 오전에 망월동에서 故 이재호 역사 분신 항거 1주기 추모제 진행
5월 27일(수)	• '전남대 5월 광주 민중항쟁 재현 거리굿 및 5월 투쟁 보고대회' – 5월 16일 이후 6명 구속, 46명 즉심) • 오후 '원각사 법당 난입 및 최루탄 투척 규탄 대법회' 참석 • 서클연합회는 14, 15일 경찰이 학내 수색 과정에서 소리 북, 창구 등이 파손되고, 자료복사물, 소품 등이 분실되었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대학 본부 앞에서 농성. 무능교수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하던 일분과 학생들은 본부 총장실 옆 회의실을 점거하고 농성
5월 28일(목)	경찰 압수수색으로 비품 파손 보상 요구하던 대표자들 7명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 함. 대표자들은 피해보상과 서부경찰서장의 사과, 총장 사과 등을 요구
6월 4일(목)	• '6·10 범국민대회 참가를 위한 학생총회'를 5·18광장에서 개최

일시	투쟁
6월 10일(수)	대동제 둘째 날, 6·10 범국민대회 날 • 오전 전남대 대동제 마라톤대회에 1,200여 명이 참여하여 백림약국을 반환점으로 여 학우들은 하프코스, 남 학우들은 풀코스로 진행.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하며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시위. 조영임 등 17명이 연행되어 조영임(무역 4), 정종현(농경 4), 이양재(신방 1)는 즉심처분되고, 김용철(경영 2) 등 13명은 훈방 처리 • 오후 4시 30분경 '6·10 범국민 대회 참가를 위한 광주지역 학생결의 대회'를 대강당 앞에서 개최하고 6·10대회 참가 행동강령 발표. 이날 집회에 조선대 '총학 건준위'도 참여 • 오후 5시경 금남로 4, 5가에 모인 시민, 학생, 목사 등 1,000여 명이 시위를 시작 • 오후 6시경 도청에서 미문화원에 이르는 도로에 5,000여 명의 시위 군중이 모여 애국가 합창,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 시위 • 오후 6시경 구 원호청 앞에서 문현승군의 주도로 학생 200여 명이 참여하여 '살인 만행 자행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열을 정비하고 태평극장 쪽으로 진출하며 시위 • 오후 7시 미문화원 앞에서 1,000여 명의 시민과 학생이 시위를 벌이다 경찰의 최루탄에 밀려서 광주공원으로 집결. 광주천 주변 시민들과 합류하여 5,000여 명으로 시위대가 불어나자 '도청 앞으로'를 외치며 광주세무서, 미문화원 앞으로 진출 • 오후 7시 30분경 구 원호청 앞에서 2,000여 명 시위, 장동 전남여고 앞에서도 1,000여 명 시위. 시위 과정에서 경찰병력에 밀려 전남여고 담이 20여 미터 정도 무너짐 • 밤 10시경 광주공원에 1만여 명이 집결하여 시위 • 새벽 2시경 100여명 정도의 전남대생들이 서현교회 시위 이후 순환도로를 따라 학교로 오던 중 농장다리 부근 지산파출소를 타격 • 이날 시위는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도심 곳곳에서 진행
6월 11일(목)	대동제 마지막 날 • 전남대 학생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6·10대회 보고대회'를 갖고 횃불시위를 전개한 뒤 밤늦게 해산
6월 15일(월)	• 5·18광장에서 학생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민주학생비상총회'를 개최. 비상총회에서는 이한열 학생에 대한 진상보고 및 명동성당투쟁보고 그리고 6·10대회 보고가 진행

일시	투쟁
6월 16일(화)	• 5·18광장에서 학생 2,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차 민주학생비상총회'를 개최 • 집회에서 김승남, 문현승, 박춘애 등 23명이 삭발하고, 80여 명의 학우들이 혈서로 '민족 민주 만세 독재타도'라고 쓰며 결사항전을 선포 ※ 확인된 삭발시위자 명단 김승남(인문대 84), 문현승(사대 83), 박춘애(사대 84), 고광업(사대 84), 박세종(사회대 84), 정종완(사대 84), 김봉용(사회대 85), 박대수(법대 85), 여승현(인문대 85), 한승철(농대 85), 박정근(사대 86), 이진(경영대 86), 조정신(인문대 86), 류봉식(법대 86). 전체 인원은 23명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외 인원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함. 혈서 투쟁 참여자 역시 일부만 파악 가능함. ※ 확인된 혈서 참여자 명단 이용빈(의대 85, 총학생회 부회장), 조용희(경영대 85-1학생회관 YMCA책임자), 류봉식(법대 86), 조정신(인문대 86), 정정희(자연대 85), 남정수(법대 85), 조오섭 등 • 이후 정문으로 이동하여 연와, 연좌시위를 전개하며 경찰병력과 대치. 경찰은 사과탄과 최루가스를 난사하며 진압을 시도하였으나 학생들은 완강히 저항. 이 과정에서 7명의 학생들이 연행되었으나 시민들과 학생들의 강력한 항의로 오후 8시 50분경 모두 풀려남 • 이날 시위 과정에 소나기가 내렸으나 주변에 있던 학우들은 긴장감 속에서 자리를 지켰고 시위대는 계속 불어남. 이후 2~3백여 명의 학생들은 중앙도서관에서 철야농성을 하며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결과 '호헌철폐 및 최루탄 추방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결성함. 철야농성 학생들은 다음 날 학생들의 등교시간에 정문에서 시위하고 해산
6월 17일(수)	• 오후 1시 30분경 5·18광장에서 '제3차 민주학생 비상총회'를 개최.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헌철폐 및 최루탄 추방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 결성식' 개최 • 16일에 이어 5명이 추가로 삭발. 과, 단대 별로 기말시험 무기한 연기 결정 발표 • 행동강령 채택. "첫째, 이한열 학우와 그의 친구인 이홍창 부상학우 등에 대한 쾌유를 빌고 앞으로 현 정권의 폭력에 맞서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토론한다. 둘째, 시험을 연기하고 각 과, 단대별로 대책위를 구성한다. 셋째, 호헌철폐와 최루탄 추방 서명을 가족, 친구에게 권유하고 함께 참여한다. 넷째, 모든 행사시 약속시간을 엄수하고 개인행동은 삼간다. 다섯째, 집회 해산 시 항상 과, 단대 등 각 대책위원회별로 결정, 다음 투쟁을 결의한다. 여섯째, 항상 대책위별로 행동한다."(『용봉』11집, 239쪽.) • 故 이한열 열사 출신고인 진흥고 동문모임도 집회에 동참해서 '90만 광주시민들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유인물 배포 • 중앙초등학교 후문, 그랜드호텔, 학생회관, 중앙교회 등 10여 군데에서 비폭력 가두시위 전개. 특별히 미문화원과 우체국, 학생회관 등으로 이어진 최초의 시내 연좌 연와시위가 펼쳐짐. 이 과정에서 여승현(인문대 85, 4일 구류) 등 35명이 연행

일시	투쟁
6월 18일(목)	최루탄 추방의 날 • 오후 3시 30분경 5·18광장에서 '가두 출정식 및 연행학생 즉각 석방을 위한 제4차 민주학생비상총회' 개최. 4,500여 명 참여 • 의, 치대를 제외한 10개 단과대학 가운데 약대가 마지막으로 기말시험 무기한 연기 결의 • 대의원회(의장 김평석, 인문대 84)도 기말시험 무기한 연기 결정. 교수들의 민주화 의지 표명 촉구 • 계림동, 조흥은행, 서현교회 세 방면으로 나뉘어 가두시위 전개. 충장로 1가 무등극장 등에서 시민, 학생 3,000여 명이 연좌시위를 벌이다 경찰의 최루탄 난사로 해산. 황금동 거리와 제일극장 앞에서 연와 연좌시위를 전개. 호남동 성당으로 이동하며 시위하고 공원 앞 광장에 집결하여 시민들과 시위 전개. 총학생회실에 상황실을 설치 • 전남대 병원 로터리로 진출한 시민과 학생들은 남동성당 앞까지 진출하여 시위하고 일부 400여 명이 남동성당에서 철야농성 돌입. 이날 학생들은 최루탄을 발산하는 경찰에 맞서 비폭력시위를 펼침 • 학교로 돌아온 500여 명이 밤 12시쯤 중앙도서관에 모여 시위를 정리하고 12시 50분쯤 중앙도서관으로 다시 들어가 철야농성에 돌입하여 다음날 오전 8시 30분경 해산
6월 19일(금)	비가 내림 • 조선대생을 포함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학생비상총회 및 광주지역 청년학도 총궐기대회'를 체육관에서 개최 • 특별위원회 나현수 공동의장이 '광주지역 애국청년학도 총궐기선언서'를 낭독. 각 학과, 단대별 대책위 구성하고 정부의 탄압정책인 휴교령·위수령에 대비한 신속한 연락망을 구축하고 계속적으로 학교에 집결하기로 결의 • 전남대 김영인 총장 명의로 기말시험 무기한 연기 공고. 이날부터 조기 방학에 들어감 • 오후 5시 10분경 시청 4거리, 공용터미널, 학동 전남대병원 5거리 등 시내 10여 곳에서 시위 시작 • 저녁 7시 원각사에서 호헌철폐 및 구속자 석방을 위한 법회가 진행되기로 하였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되자 원각사, 구 원호청, 태평극장, 한미쇼핑, 계림동 로터리 등 중앙로 방향에서 경찰과 치열한 투석전 및 화염병 투척 등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 • 밤 8시쯤 계림파출소를 접수하여 집기를 밖으로 내어 불태우기도 함. 이날 사직동파출소, 대인동 파출소, 충장파출소가 시위대를 타격 • 밤 8시 30분경 3,000여 명이 원각사 앞에 모여 연좌농성. 3만여 명이 금남로 4가를 중심으로 시위. 50여 명의 시민, 학생이 부상을 당해씅며 금남로, 중앙로, 공용터미널 일대를 점거하며 20일(토) 오전까지 계속 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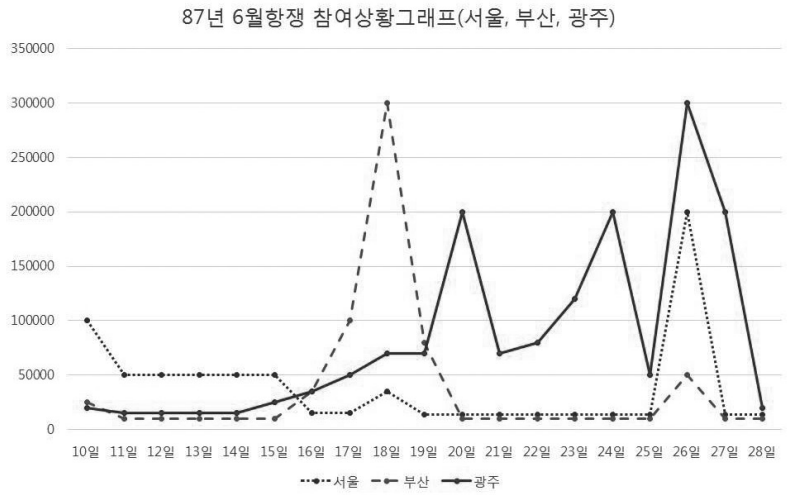
일시	투쟁
6월 20일(토)	• 1,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민주학생 비상총회' 개최. 이날 학생회실, 강의실 출입문에 기말시험 무기한 연기와 조기 방학에 대한 성명서가 게재. 교육실습에 나간 사범대생 30여 명 참여 • 이날부터 전투경찰의 무차별적인 최루탄 발사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염병을 만들어 대항하기로 결의하고 제잡비용 모금 돌입 • 학교에서 5개조로 나눠 시내에 행진. 3개조는 정문-태봉파출소-신역-공용터미널-광주우체국 방면으로 진출, 나머지 2개조는 동문-구 호전-공용터미널-한미쇼핑-원각사-광주은행 앞으로 진출 • 오후 2시경 의대생 300여 명이 가운을 입고 시위 참가. 인턴, 간호사 등도 동참 • 오후 4시부터 중앙대교 앞에서 시민과 학생들이 시위를 전개, 약 3만여 명으로 참가자가 늘어 충장파출소 앞까지 완전 장악 • 밤 8시 40분경 중앙로에서 대성국교 사이에 시위대열 10만여 명 운집, 메가폰과 마이크를 설치하여 시위 전개 • 밤 9시쯤 구 원호청 앞에서 광주은행 사이에 20만여 명 운집, 11시쯤 시민 2만여 명이 금남로 4가, 5가를 완전히 장악, 새벽 2시까지 시위 • 새벽 1시 30분쯤 태평극장 앞에서 오정규(공대 86) 최루탄에 맞아 입원
6월 21일(일)	• 오후 1시경 '제2차 호헌철폐와 최루탄 추방을 위한 광주시민궐기대회' 개최 • 오후 1시 10분쯤 중앙로에는 10만여 명이 운집해서 시국 대토론회 개최 • 오후 3시쯤부터 광주우체국, 충장로 3가, 동해물약국 등에서 시위 전개. 동해물 약국 앞에서 500여 명과 함께 연좌시위 도중 문현승 '구학투' 위원장이 사복경찰에 연행 • 오후 5시부터 5만여 명의 시민과 학생이 금남로와 중앙로를 점거하여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시위 • 밤 12시 30분쯤 중앙로 시위대와 광주공원 부근 시위대가 서현교회 방면에서 합류, 화염병을 제작하여 투쟁. 12시가 지나면서 시위대를 서현교회 쪽으로 집결시켜 새벽까지 시위 • 이날 밤 10시 30분쯤 한병근(의학, 4)이 태평극장 앞 중앙로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직격탄에 머리를 맞아 병원에 입원하여 2학기 초인 9월까지 치료를 받음(「전대신문」 9월 3일자 칼럼 참조)
6월 22일(월)	• 오후 1시 30분경 '군부독재 종식을 위한 90만 애국시민 궐기대회 및 제2차 청년학도 총궐기대회' 개최. 이날부터 이광일 '구학투' 부위원장이 대회를 주도 • 오전 11시 40분쯤 전남대 의대, 치대 학생들이 전남대병원 로터리에서 연좌 연와시위를 벌이자 수천 명의 시민이 호응하여 함께 도로를 점거하며 시위. 사동, 사직동 파출소 근처까지 진출한 이후 오후 1시 25분쯤 의대로 돌아감. 시내에선 오후 8시쯤부터 서현교회, 금남로를 시위대가 가득 메움
6월 23일(화)	• '군부독재 종식을 위한 광주지역 청년학도 출정식' 개최. 5·18광장에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3개 대학 1천여 명 참석 • 매일 오후 6시,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것을 신호로 가두 투쟁을 시작하기로 결의 • 특별대책위 명의로 '광주지역 중·고교 후배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부하고 행동지침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투쟁의 원인, 과정, 전망, 고교생이 해야 할 일에 관해 토론하고, 집회나 시위에 참여한 친구들의 경험담 듣기, 오늘의 교육현실(예: 자율학습)을 주제로 토론하기, 날마다 오후 7시에 충장로, 금남로 일대에서 민주화 투쟁이 있으니 참가하기 등이 제안됨 • 전남대 의, 치대 학생 150여 명은 치대 강당에서 지난 21일 발생한 한병근 학생의 최루탄 부상에 항의하며 전대병원광장에 모여 시위 • 이날 밤 8시 30분경에는 금남로 5가 동성다방근처에서 이웅범(경영대 3)군이 최루탄 직격탄에 맞아 병원에서 치료

일시	투쟁
6월 24일(수)	• 5·18광장에서 '군부독재 종식을 위한 제3차 실천대회 출정식 및 토론회'를 조선대, 호남대, 서강전문대, 동신전문대 학생 800여 명의 참여 속에 개최 • 밤 8시 30분쯤 금남로 4가 광주투자금융 앞에서 1만 5,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광주 범시민 궐기대회' 개최 • 오전에는 전남대 의, 치대 학생 300여 명이 지난 21일 발생한 한병근 학생 최루탄 부상에 대한 광주경찰서장의 사과를 받아냄
6월 25일(목)	• '광주지역 청년학도 궐기대회'를 조선대에서 오후 3시부터 개최 예정이었으나 경찰 원천봉쇄로 무산 • 저녁 7시 35분쯤 금남로 4가 대창석유 빌딩 앞에 시위 군중 집결 시작해서 경찰과 대치 • 밤 8시쯤 이광일 '구학투' 부위원장의 사회로 1만 5,000여 명이 연좌농성을 하며 '군부독재 종식을 위한 제2차 90만 광주시민 궐기대회'를 개최
6월 26일(금)	• 낮 12시에 전남대 체육관에서 '도청탈환을 위한 4백만 범도민 평화대행진 출정식' 개최. 조선대, 호남대, 서강전문대 학생과 고등학생이 참석. 집회가 끝난 후 학과 단위별로 깃발, 플래카드 등을 들고 교외 진출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의해 저지당하자, 삼삼오오 공용터미널로 줄을 지어 행진 • 오후 5시 15분쯤 공용터미널 부근에서 경찰 지프차량 1대와 전경버스 1대가 전소. 이날 6월 민주항쟁 기간 중 최대인 30만여 명이 참가하여 27일 새벽 5시까지 시위를 계속함
6월 27일(토)	• 저녁 6시경 한일은행 앞에서 1,000여명의 전남대생을 중심으로 화염병을 투척하며 조직적인 시위를 전개 • 저녁 7시 30분경 중앙교회 옥상에서 화염병이 아래로 던져지기도 하고 옥외방송이 계속됨
6월 29일(월)	• 대강당 앞에서 1,000여 명이 모여 '군부독재 종식을 위한 전열 정비대회'를 개최 • 이날 대회에서 '투쟁의 불길로 독재를 종식시키자!! 90만 광주 애국시민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유인물과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유인물을 배포 • 저녁에는 남동성당에서 개최되는 특별미사에 참여하여 계속적인 투쟁을 요구하며 촛불 가두행진과 연좌농성을 전개
7월 2일(목)	• 전남대 대강당에서 700여 명이 모여서 '민주헌법쟁취를 위한 시국 대토론회'를 개회. 시국 토론회에서는 6·29선언 이후 '정세분석과 대처 방안' 등을 토론 • 오후에는 광주공원에서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집회 개최를 시도하였으나 경찰의 무차별 연행으로 집회를 주도한 학생회간부들 전원이 연행
7월 5일(일)	이한열 열사 사망
7월 6일(월)	• 전남대 총학생회는 6일~8일까지 이한열 열사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제1학생회관 앞에 분향소를 설치
7월 7일(화)	• 오후 3시 45분 전남대 5·18광장에서 전남대생 300여 명은 '故 이한열 열사 대책 학생비상총회'를 개최. 학생들은 비상총회에서 이한열 열사의 사망경과보고를 하고, '우리 모두 단결하여 민주화를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더욱 가열찬 투쟁을 전개하자'라고 결의. 비상총회를 마친 학생들은 제1학생회관에 마련된 분향소에 분향 • 분향소에는 전남대 총학생회 조화 및 진흥고 조규진 교장이 보낸 대형 조화 두 개가 설치되었고, 추모비건립 모금함도 함께 배치

일시	투쟁
7월 8일(수)	• 전남대생 1천 5백여 명은 이한열 열사의 분향소가 설치된 YMCA 앞 금남로에서 연좌농성과 추모행진을 벌임 • 저녁 7시 25분경에는 300여 명의 학생들이 '국민의 힘으로 민주정부수립하자'라고 쓰인 플래카드와 이한열 열사의 영정을 앞세운 채 인도와 차도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며 '한열이를 살려내라, 최루탄을 추방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고, 시위대는 1천 5백여 명으로 늘어나 광주관광호텔 앞까지 시위를 전개
7월 9일(목)	이한열 열사 장례식 날 · 이날 오후 4시부터 인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여 금남로 1가부터 유동삼거리까지 도로가 30만여 명의 인파로 가득 참 · 광주에 도착한 운구행렬은 저녁 6시 20분경에 이한열 열사의 모교인 진흥고에서 2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제를 진행 · 저녁 7시 55분경 도청 앞 광장에서 운구행렬이 도착하자 시민들은 '이열사 만세', '한열이를 살려내라'을 외침. 전남대 총학생회장 김승남 군 등 지역인사들의 추도사와 성명서 낭독으로 진행된 추도대회 진행 후 망월동으로 이동 · 망월동 3묘역에 2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문객들이 부르는 '애국가', '아리랑', '선구자' 등의 노래 속에서 대형 태극기에 싸인 채 열사는 영면에 듬 · 도청 앞 광장에서 이한열 열사의 추도대회를 마치고 망월동으로 가지 못한 시민과 학생 2천여 명은 도청 주변에서 밤늦게까지 시위 전개 · 이날 자정에는 전남대 교내에서 2,000여 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모여 '이한열 열사 애도 및 민주화 진군대회'를 밤을 새워 진행. 다음 날 10일(금) 아침 6시 20분경 대회를 마친 일부 시민과 학생들은 광주시청 앞 사거리와 공용터미널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오전 8시 10분경 해산

2. **87년 6월항쟁 참여상황그래프(서울, 부산, 광주)**

((사)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전남대6월항쟁동지회, 2018, 64)



로컬(리티)과 6월항쟁

광주에서 6월항쟁을 다시 보기

발행일 2019년 2월 28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T. 031.361.9500 F. 031.361.9576
www.kdemo.or.kr

디자인·인쇄 (주)크리에이티브 다다 www.credada.com 02.518.1571

©201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제나 복제는 금합니다.